



메카:
혼/란
(婚/亂)

2000. 가을 제4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결혼당근주의 선언

하나의 **결혼당근(혼령)**이 이 땅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 가부장의 망령이 깃든 결혼당근주의라는 **결혼당근(혼령)**이. 이 **결혼당근(혼령)**이 씨우지 않은 무리, 즉 **결혼(혼)** 빼는 여자들이 이 유령을 퇴치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몸부림을치고 있다.

결혼(혼)을 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결혼당근(혼령)**이란 실체 없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결혼당근(혼령)**의 공격은 그토록 집요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결혼(혼)** 빼는 여자의 싸움은 너무나도 힘겹다.

결혼당근(혼령)이 씨워진 이 세상을 들여다보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귀찮도록 묻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하게 될 결혼만큼은 핑크빛일 것이라고 생각 또는 다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결혼을 한 후에 누구부인, 누구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여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 사실로부터 새 가지 결혼이 나온다.

첫째,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사실.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고자 하기도 전에 결혼이란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은 결혼이란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되어야 함을 생각조차하지 않게끔 된다.

둘째,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사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거나 진지하게 상상을 해보면 자신이 꿈꾸는 결혼생활이 허상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결혼... 그들은 달콤한 결혼을 꿈꿀 수밖에 없다. 그 꿈은 아름다운 결

혼식, 행복한 부부의 이미지를 담은 CF등에 투영됨과 동시에 지지를 받는다.

셋째, 결혼을 한 여자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이 땅에 서는 일은 원자폭탄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 여자... 사랑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의 삶의 동반자가 아니다.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법. 그녀의 남자는 동반자 이전에 보호자가 된다. 그녀가 서론이 되고 마흔이 되도 그녀의 서류엔 보호자 도장관이 따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사실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기 위하여, 적어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결혼(혼)** 빼는 여자와 함께 이제 투입술을 연다. 이 선언은 경상방언, 전라방언, 충청방언, 영동방언, 함경방언, 황해방언, 평안방언 그리고 표준어로 발표된다.

전국 **결혼(혼)** 빼는 여자 연합

◀ 결혼당근주의: 결혼은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개인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결혼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결혼은 선택사항이므로 언제든의 성숙도와 결혼여부는 일체의 상관성이 없다. 라는 주장의 이념. 결혼당근주의의 반대 이념.

◀ 결혼당근주의: 결혼은 완전한 상인이 되는 통과의례로서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며, 그것은 또한 매우 달콤하고 한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주류 이념

◀ **결혼당근(혼령)**: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을 종용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정신을 빼앗아 결혼을 하려고 직접 명령하기도 하는 무서운 존재. 하지만 아무도 이것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결혼(혼)** 빼는 여자: **결혼당근(혼령)**을 격파하려는 용기 만행의 여자. **결혼당근(혼령)**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직 힘이 약하나 그녀의 세력도 조금씩 커지고 있음. 혁마사의 딸이라는 소문도 돌리나 확인된 바 없음.

▶ 이 선언은 공산당선언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2000. 가을 제4호

두입술

그대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Intro. 결혼 안당근주의 선언

I. 혼 권하는 사회

004 말말말

〈이야기들〉 결혼을 꿈꾸다

006 나는 복학생이다. / 조재현

009 그냥, 시집이나 갈까? / 장지흠

012 나는 결혼을 꿈꾼다 / 윤여원

016 〈매체비평〉 off the record / 적

020 〈기획글〉 Happy end?! / 눌

026 〈취어가기〉 결혼 용어 대사전 / 엘

II. 혼났다? 일났다!

030 인기 주례인 왕진보 씨의 결혼 주례사 / 담

〈이야기들〉

032 행복한 그녀의 이야기 / 다시

037 청혼: Blue wedding / cari

042 〈동화〉 레몬 이야기 / 쟁가

044 〈만화〉 즐거운 우리 집 / zimu

050 〈취어가기〉 할배도사에게 물어봐 / 뽕기

테마: 혼란(婚亂)



III. 혼백은 여자

054 '빙그르'가 살아가는 곳

056 결혼을 거부한 여자 - 이 시대의 마녀 !! / 초이

〈이야기들〉 우리 사는 그대로

063 그 무거운 종이 한 장의 차이 / 박선희

066 외판방의 행복 / 하수

069 이제는 말하고 싶다 / 김정민

072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 / 이소희

076 〈인터뷰〉 반쪽이네 놀러가기!!! / 2gal

080 〈취어가기〉 세상에 이런 일이

081 〈선언서〉 나? 혼백은 여자!

082 〈기획글〉 가족은 움직이는 거야 / 편집위원회

088 여우자리 | 언니야 사랑해 / 편집위원회

090 마실 | 밥퍼? 뽕퍼! / 김신현경

092 마야의 전채하기 | 100원짜리의 권력 / 마야

098 박살네 | 김경위, 그녀는 일하는 어머니의 대명사이다. / 장정임

102 〈교과서 씹어먹기〉 남녀차별 옛이야기???

두입술을 열며...

익숙한 것일수록 꿰뚫어보기가 힘든 법이다. 두입술 제 4호 기획은 지난 한 학기 동안 가족을 주제로 진행되었지만 난항을 거듭하였다. 자신과 가족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대 대학생인 우리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서 새롭게 시작하였다.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우리는 또다른 가족을 꿈꾸어 아한다고 기대되어진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고 자신 있게 외치면 장엄한 그리기에는 그 가족의 구성과 결혼 사이의 연결고리는 너무 강박되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보다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더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왜 결혼하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추궁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택하는 택하지 않든, 결혼은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하는 문제였다. 결혼은 우리에게 매혹인 동시에 불안이다.

이번 테마인 혼/란(婚/亂)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둘러싼 어지러움이자 싸움이다. 결혼을 하기 위한 혼란, 결혼 생활 속에서의 혼란,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한 혼란 등 '/'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결혼이 남무하는 혼란하는 사회에서, 혼내는 여자는 결혼 어부로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며 결혼이라는 익숙함과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편함을 균열 내는 여자이다.

우리는 더 행복하려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혼내는 여자이고 싶다.

두입술 편집장 김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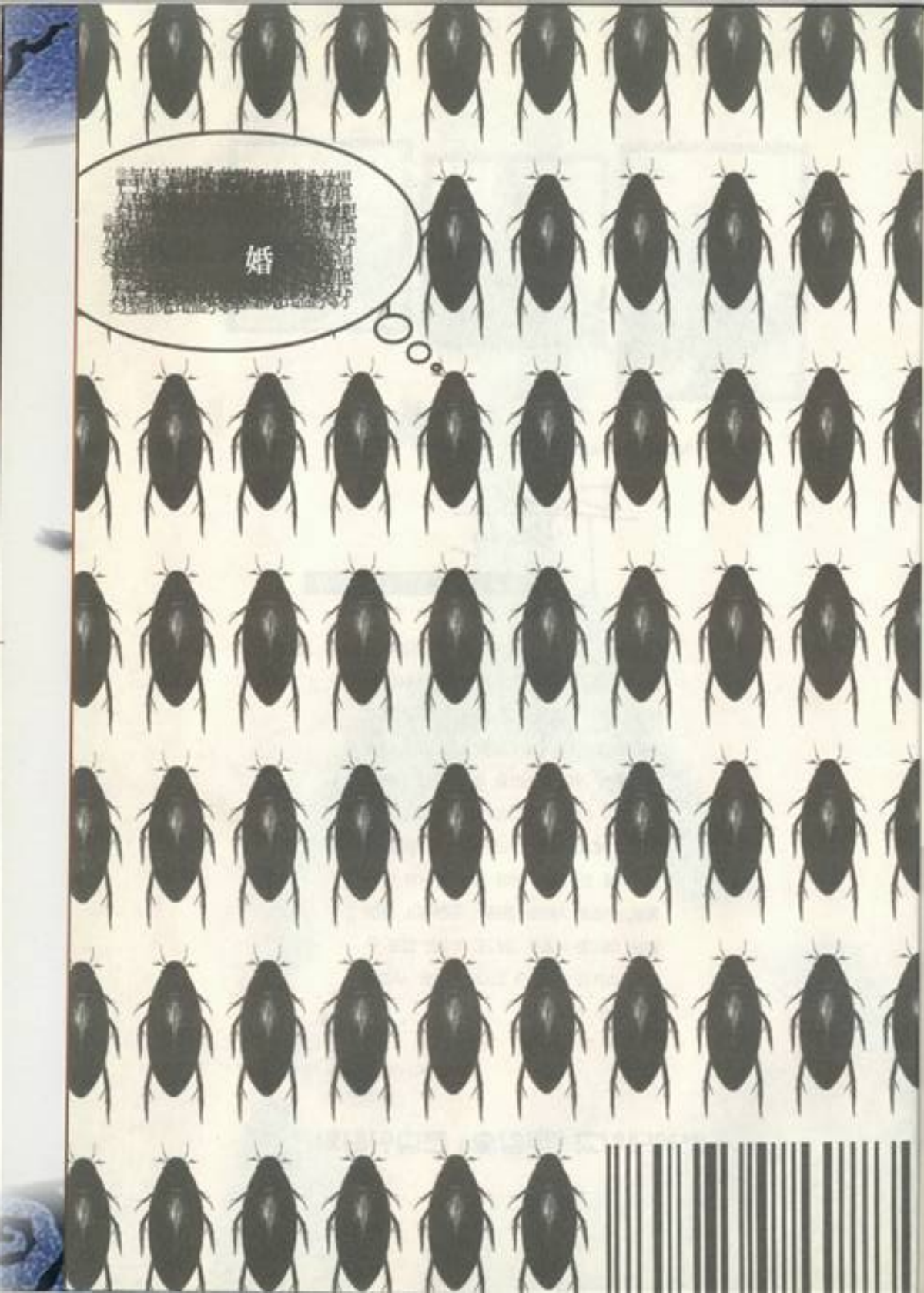
2000 가을 · 4호

두입술

그때 두입술을 열어 함께 말하라

"그대들의 입술을 열라.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열지는 말라. 우리, 다시 일해 너/나는 열려 있지도 닫혀 있지도 않다. 우리의 입술 즉 너의 입술과 나의 입술 사이에서는 몇 개의 목소리들, 몇 가지의 말하는 방식들이 이리저리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우리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 밖을 향해 있고, 밖에 있으면서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통로. 우리들 사이의 통로는 무한하다. 끝이 없는. 어떠한 매듭도 고리도 어떠한 입도 우리의 소통을 멈출 수 없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집은 벽이 없다..."

연세대학교 『두입술』 편집위원회



婚

혼 권하는 사회

언제부턴가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

- 말말말

-(이야기) 결혼을 꿈꾸다

-(매체비평) Off the record

-(기획글) Happy end?!

-결혼 용어 대사전

강취진능력도 있고 잔물치인 것은 더욱 입어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27세 · 주부)

저한테 부족한 데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건 아니에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통해 사람을 하고 싶어요.
뜨거운 사람을... (37세 · 이혼남)

모나게 독신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너무 외롭고 궁색스러울 것 같았다.
독신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의
문화공포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39세 · 주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인가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습니다. 되도록 망랑...
(24세 · 이○○)

일을 가지고 일다면 이렇게는 사기 안겠어요. 12시를 넘어가는 시계바늘을 쳐다
보며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일 외에는 부부의 존재의미를 모르겠어요.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에요 (37세 · 주부)



인생의 종착점이죠. 완전체가 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20세 · 학생)

두손 4
은연하는 나귀

나는 복학생이다 / 조재현
그냥 시집이나 갈까? / 장지흠
나는 결혼을 꿈꾼다 / 윤여현



한복차 한마디

'자신의 결혼 계획'이라는 주제로 청탁한 남자와 여자의 수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결혼과 직업적 성취가 동시에 존재했지만, 여자의 경우는 결혼과 자기만의 삶 중 한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확대시켜 남녀의 차이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을 좀더 구체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짚을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남자의 입장을 포괄하는 글 한편을 읽고, 20대 초반의 여성과 20대 중반의 여성의 각기 다른, 그러나 비슷한 고민을 담은 글을 두 편 실는다.



조재현(법학 94)

나는 복학생이다

어렸을 때 난 내가 대학생이 되는 것이 상상이 안 되었다. 하지만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있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내가 군대에 갔다와서 복학생이 되는 것이 상상이 안 되었다. 하지만 어느덧 군에서 제대한 지 일 년이 지나 이제는 복학생이 되어버렸다.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솔직히 난, 더욱 복잡해진 심정을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군대 다녀오면 철이 든다고들 한다. 글쎄 '철'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엔 걱정만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참 걱정도 많다. 우선 내 미래가 너무도 불안하다. 이전 졸업도 코 앞으로 다가왔고 더 이상 대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보호받을 시기는 지나버린 것 같다. 법벌이로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대부분의 복학생들이 그렇듯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난 오늘도 도서관을 찾는다. 무엇을 하든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나마 도서관 책상에 앉아 글자 한 자라도 끄적대는 것이 제일로 속 편하다.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꿈은 날이 갈수록 큰 포부에서 작은 소망으로 변해버린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산다. 여유로움은 더 이상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음을 느끼는 데만 생각은 사치다.

사실 난 다른 사람에 비해 이성 교제 경험이 적은 편이다. 군대 가기 전에 이성

교제는 나에게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어서 여자 친구의 필요성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군에 가기 전 한 명의 여자 친구가 있었다. 물론 어렸을 때니까 얼굴 반반한 여자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사귀기가 정말 힘들었다. 글쎄...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고나 할까? 어쨌든 그 후로 별일 없이 지냈고 제대 후에 소개팅으로 또 한명의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와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때 난 그 아이와 헤어지면서 생각했다. '정말로 성격 차이로도 이혼할 수 있겠구나' 라고.

내가 군에 다녀와서 성격이 변한 걸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데 나도 참 알게 모르게 결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 정보 회사라는 것이 우습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 정 안되면 저기다 등록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 사실 지금도 내가 결혼을 생각해야 할 만큼 나이가 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널 놓고 있기에 무언가 허전한 구석이 있다. 속된 말로 술을 상대를 찾아뵙자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왜 제대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 다만 주위의 결혼 이야기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자를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다. 더 신중해지고 타산적이 되었다. 외모보다는 성격과 능력을 보게 된다. 우리 부모님도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군대 가기 전부터 나에게 본인들의 머리감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곤 하셨다. '여자는 얼굴보다는 성격이란다. 얼굴은 금방 질리는 거고 성격은 평생 간단다. 그리고 이왕이면 능력있는 여자가 좋겠지? 2세를 생각해라' 등등. 당시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다. 여자에게서 무슨 능력을 원하냐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엔 능력있는 여자가 좋다. 아무리 예뻐도 머리 속에 비어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미칠 것이다. 소위 말하는 '평생의 동반자' 인데 대화가 되지 않아서 서로 목석같이 바라보고만 살아간다면 정말 비참할 것 같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도 내가 철이 들었다는 증거인 것 같다. 길거리



에 돌아 다니는 어린 커물들이 측은하다. 이제 곧 불어닥칠 폭풍우에 앞서 한가로운 휴식을 즐기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런 반면에 직장인 커물들은 한없이 부럽다. 그들은 하나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또 다른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동반자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같다. 난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앞길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복학생이다.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며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난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참 많이 피곤하고 걱정도 많지만 이것도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굳이 피할 생각은 없다. 세상을 산다는 건 여러 고개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입시도 그 고개 중의 하나였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넘기 힘든 고개도 아니었던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넘어보는 고개여서 그랬는지 꽤나 호들갑을 떨었다. 난 지금 군대라는 고개를 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고개를 넘으려고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이 고개도 지나고 나면 별 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번 고개도 잘 넘고 싶다. **장지훈**



장지훈(안문 98)

그냥 시집이 나갈까

내가 중학교 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커서 비디오 가게 주인 되고 싶어..."

정말 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았다. 귀찮게 꿈지락거리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인한다면 하루종일 꿈속에서 환상을 보며 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엄마는 얼굴을 찡푸리며 말했다.

"가게는 공짜로 나오냐?"

그래서 나는 커서 돈을 번 다음에 비디오 가게를 차리리라 생각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의사 되고 싶어."

꼭 의사여야 한다가 보다 사회에서 존경 받는 직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받는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학교 남자아이들이 "여자들은 공부해서 뭐하나... 잘 돼야 선생님 하잖아..."라고 말하는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 나는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새 생명을 더 이상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대학교 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비디오 가게나 빵가게 할까봐...”

1학년 내내 초조함을 느꼈다. 성적도 마음대로 나와 주지 않고 문제 여자는 취직이 가장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떡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그러다 어릴 때의 꿈으로 돌아가 버렸다. 사실 난 성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성취욕을 가진 것도 아니다.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했을 때 꼭 팔리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산다면... 그냥 귀찮지 않게 살면 행복할 거 같다. 비디오 가게나 빵집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설마 굶어 죽겠어??? 설마 무시당하고 살겠어????

얼마 전에 우연히 베스트극장 비슷한 것을 유선방송에서 보았다. 편한 내용이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느꼈는데 남자네 집이 망해서 남자는 여자를 맡 없이 떠났다. 나중에 여자는 의사와 신을 파서 결혼을 하지만 남편이 망나니라 3개월만에 이혼 당한다. 바로 그 때 옛날의 그 남자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상태에서 나타나 둘은 약간의 갈등 끝에 결혼에 동의한다.

근데 그 여자가 이혼 후 매우 비참한 상태로 설정된 상황은 동네 비디오 가게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우오오오!!!!!! 그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바라는 모습이 남들 눈에는 구제 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나 보다...

“넌 왜 결혼 안 하려구??? ”

“그냥... 같이 살아도 열불 안 터질 남자를 찾기 힘들 거 같아서... 그냥 말없이 참고 견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거 갖고 투쟁하느니 지금처럼 속 편하게 살래...”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되었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애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은 시집 잘 길 거예요. 학벌도 괜찮고 참하고...”

에...에야... 할말이 없구나...-_-

“너 진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난 별로 그런 것에 흥미를 잃었어... 그냥 저냥 살아도 괜찮을 거 같아...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살래. 뭐, 설마 일할 곳 하나 없겠나?”

“난 싫어. 성공 못하면 진짜 싫을 거 같아. 네 혼자 살 거라며? 여자가 혼자 살면서 번번하게 살면 진짜 주하지 않나? 거기다 걸었을 때나 독신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 봐라.”

“그렇지... 그렇긴 해...”

대학교 3학년

뭔가 술을 윤곽이 드러날 때다.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비디오 가게나 빵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좀 어려워 보인다...

성공과 집착, 갈등과 도피, 자만과 어리석음...

고등학교 시절에 성공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설마...내가 학교에서 이만큼은 하는데...

대학 들어와서 보게 될 미래의 모습은 잘해 회사 취직...그것도 엄청난 경쟁... 피곤하다.

나는 아직 모르겠다.

아직도 여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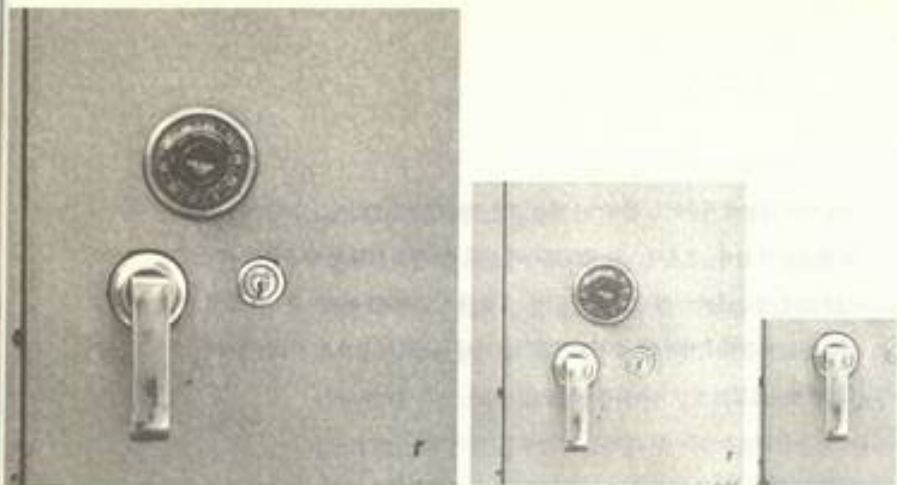
여자가 결혼 없이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몇 배나 노력해야 한다.

반면 결혼 한 번 잘해서 여자에게 얻어질 수 있는 성공은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난 아직 세상의 평가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정말 아직 모르겠다. **무엇을**

나는 결혼을 꿈꾸다



윤여원(행정 00졸업)

결혼을 꿈꾸도록 문열리어 이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도 같다..

나만 인간은 신기하리만치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적당한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을 전제로 결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각들을 전개해 보기도 했었다.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시댁식구들에게 잘해서 귀여움을 받고, 양가의 사돈끼리 참으로 화목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동등... 거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족의 장면들을 나의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왔다. 이러한 편념들은 물론 집안 분위기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똑똑한 남자는 똑똑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5대가 봤자 시집가기만 힘들다. 적당히 Y대만 가면 되지... 여자는 살림하는 게 최고다. 편하게 살아라...' 유년시절부터 들어왔던 이러한 얘기들은 결혼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결혼이라는 것을 어련히 소꿉장난처럼 간단하고 즐거운 것으로 간과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스물 네 살이 되던 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 '지금부

터 너가 결혼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결혼시켜준다.' 라고. 자식은 일단 결혼 전까지 부모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고 그러한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의 허락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부모가 정한 일정한 틀에 따라 자식은 결혼이라는 통과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집안의 분위기이다.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에 과감하게 저항해 볼 생각이 내겐 전혀 없다. 일단은 일방한 효심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한 밥줄이 끊어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더불어 결혼을 통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상한 독립심도 작용을 하였다.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결혼 안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다.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는 생각부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까지. 사실 나는 그런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결혼을 그러도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 하는 건지...결혼이 과연 여성에게 굴레일까...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가족 내에서 여성은 분명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가정 내에서 차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직까지도 비밀비제한 가정폭력이나 남존여비사상 등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분명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사회는 변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나의 의지로 가정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다.

나처럼 결혼을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도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나이에 따른 주위의 시선일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집안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네 나이가 몇이나, '나이가 적지 않네,' '꼭 찾네,' '결혼해야겠네,'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동등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 처음 한두 번은 담담

히 미소로 응대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아예 친척들이 만나는 자리를 피해 버리곤 했었다.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지, 어련히 할 맘 있고 사람 맘에 들면 하지 않을까.' 결말도 나지 않는 소모적인 대화에 내 자신이 대상화 되어 입에 오르내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결혼이라는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짜증스러움도 결혼을 한다는 나의 확고한 생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스스로 혼자 살 수는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 나의 의지와 상대방의 의지를 잘 조화시켜 결혼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상대방에게 끌리지 않고 나의 의지를 크게 침해 받지 않고 몇몇의 연애를 해왔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나의 자신감에 철퇴를 가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참 많이 좋아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다.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신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갖고 있던 환상을 깨고, 찬찬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결혼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20년 이상을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안락했던 환경 속에 살다가, 전혀 새롭고 어쩌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가는 것. 그건 분명 상당한 곤욕이다. 20여년을 결혼에 대한 달콤한 환상에 젖어 살다가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평생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다른 제반 문제들... 이상하게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홀로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 이런 것들에 씩씩하게 대처할 용기가 없기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가다듬는다.

이름 되면 나라는 사람이 결혼은 당연히 한다는 신념을 얼마나 확고히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내가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누구랑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 내가 얼마나 장사가 잘되는 물건이지 한 번 보자'라는 것이다.

얼마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있다/ 없다' 게임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세울 만한 특기사항과 자신에게 없어 부족한 특기사항과 자질을 적어보는 게임이다. ○○가 가진 것... 돈, 집안, 학벌, 외국어 실력... 이상의 열거한 객관적 특기사항 내지 장점이 내겐 있다. 객관적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신감 혹은 자존심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나란 인간의 상품가치를 결정짓고 높여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끔은 돈, 집안, 학벌... 이런 것들을 빼고 나란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빼고 나라도 나란 인간이 참 괜찮은 인간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자괴감 섞인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현실주의자인 나로서는 지금의 내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너 정도면 막말로 선 시장에 나가면 꽤나 괜찮은, 잘 팔리는 상품이다.'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상품이라는 사실을 약간은 씁쓸하게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상황에 적응시킨다.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나라는 사람과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나라는 사람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이다.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라고 했던가... 맛있는 음식이 담긴 예쁜 밥그릇을 과감하게 차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잘 살아보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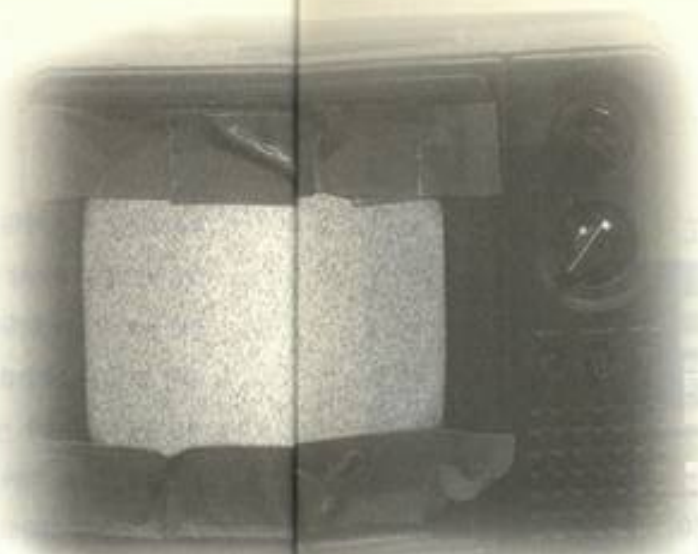
Off the record

-방송 하루 전

아, 우선 여러분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뽑힌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미모가 못 남성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거라는 얘기죠. 사실, 서울대 나오고 텔런트 뽐치게 예뻐도 떨어진 경우 많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럽거든요. 잠시 사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데리고 살 건데,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게 의식되면 불편하다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멀어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도의 지성과 미모면 멀도 더도 아니고 딱 좋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서 될 만한 분들을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충실히 따라주세요. 대본에 자세히 나와있을 테고, 오늘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 알려 드립니다.

우선, 표정. 남자가 1차에 찍었다고 너무 기고만장하다가 표정 관리 못 해서 2차 때 떨어진 분들 많아요. 모두들 늘 미소 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어색하게 웃으시면 안 되죠. 뭐든 어색해 하거나 수줍어하면 안 돼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 물론, 막 푼수처럼 까불면 절대 안 되죠. 대쉬할 때에는 센스 있는 말 한두 마디로 하고, 안 된다 싶을 금방 물러나야 해요. 매달리는 여자는 뭐랄까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멀린다고 다리 떨거나 손뼉 물어뜯는 분 있는데, 칠칠치 못해 보여요. 심지어 대기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려는 분, 남자 대기실에서 모르겠지 하시지만 그러다가 들리면 그 날은 남자분들 사랑의 싹대기 절대 못 받아요. 정 안 되겠으면 화장실에서만 피우고, 어차피 결혼하고 애 낳으려면 끊어야 할 거, 웬만하면 이 기회에 끊으세요.

말할 때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빼지도 나서지도 말자.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대본 없는 질문 시간 있죠? 예를 들어, "애인이 밤에 들어가지 말라고 부탁하면?" 같은 질문요. 그럴 때 "안 들어간다"면 처녀 아니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 짐승~!" 그래도 내숭이요,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쩌구" 하면 무지 피곤해 보이죠. 뭐,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부드럽게 달랜다고 해주세요. 남자 친구들 많냐. 뭐 그런 질문엔 친하긴 하지만 요즘 다 애인이랑 노느라 왕따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많다고만 하면 남자관계 복잡해 보이고, 없다고 하면 인기 없어 보이거나 오히려 뭔가 켄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흡연량, 술버릇 같은 건 아예 안 묻겠지만, 주량 물을 때 있는데, 맥주 1~2병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남자분 말이 맘에 안 들어도 좀 저주세요. 전에도 남자분이 '아들 낳고 싶다'고 한 말 갖고 싸워서 겨우 말렸는데도 분위기 어색해서 NG가 한 50번은 났을 거예요.

Love Love Shake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이 때 커플이 거의 결정나는 거예요. 장기자랑 준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 말씀 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센스 있게 행동하라. 설마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속 치지는 말라드나 촌스러운 트루트 준비해 온 분 없죠? 보자. 음... 3번 분 '대쉬'... 이진 좀 그래요. 노래 가사부터 너무 터프한 데다 춤이 무슨 노는 여자 같아 보일 거예요. 물론, 남자들이 백지영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야 텔레비전에 몸매 잘 빠진 여자가 흔드니까 좋은 거구. 결혼할 여자 보는 거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남자들이 어릴 때야 예쁜 애들 보고 침흘리지, 이제는 좀더 현실적으로 결혼할 만한 상대를 찾는다고요. 그렇게 춤추면 찍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 시선의식해



서 못 찍어요. 물론, 못 노는 것도 자랑은 아니에요. 남자들이란 매력 있고 인기도 많으면 서,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를 원하는 법이거든요. 네? 아, 1번... 준비 안 됐다고요? 어머, 당장 내일인데, 어쩌려구요. 아니, 회사 일이 바쁘더라도 빼먹던지 틈틈이 연습 했어야 죠. 일생일대의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래서, 시집가겠어요? 내일 오전까지 완벽하게 준 비하세요.

모두들, 이 프로그램을 전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이 다 본다는 거 명시하시구요. 그 부모 님도 보신다는 것도 명시하세요. 남자 분이랑 마음 맞아도 부모님에게 안좋게 찍히면, 그 결혼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혹, 결혼은 어떡이찌 한다해도 두고두고 괴롭잖아요. 그래도, 여러 분들은 다 '일등 신부감', '일등 며느리감' 이예요. 남자분들도 이 정도 나오려면 '일등 신랑 감' 이구요. 저저번주 방송 보셨어요? 그 때, 한 여자 분 짝대기 다 맞고 여유 있게 남자 고른 거 보셨죠? 그 남자, 일류대 졸업한 대기업 엘리트 사원이었잖아요. 봉 잠은거죠. 그 분이 제 말에 제일 충실하게 따랐더니 그런 결과 나온 거예요. 다 좋은 방송 만들고 여러분 짝 찾아드 리려고 하는 일인니까, 제 말대로 하시면, '일등 부부' 가 탄생하는 거죠. 아셨죠? 좋은 신랑감 만나고 싶죠? 어,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내일 뵙죠. **주간**

적(10 zzung@ dreamwiz.com)

고품격 결혼 정보지

주
간

구혼시장

2000년 9월 05일 화요일 제4호

구혼시장

☎ 955-9595 (구혼구혼)

강남아가씨. 76년 10월 식, 슈퍼유먼형, 무사고, 옵션장착(명문 Y대졸, 신 부수업) 상태 A급 최상
☎ 016-234-0000

급매노총각. 65년 1월 식, 한국형 자상모델, 1차 례 이용한 중고품, 옵션 장착(건설한 직장), 상태 양호.
☎ 017-212-0000

주방 아줌마 구함. 가족 적인 분위기에서 웃으며 일하실 분, 초보자 환영. 경험자 사절. 그 외 집안 일도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
☎ 011-123-0000

여종업원 모집. 가족 대 우, 24이상 27세 이하 환 영, 편안한 분위기, 전화 상담 후 면접, 근무조건 협의가.
☎ 016-250-0000

아기 낳아 기르며 집안 살림 해주실 분, 속식제 공, 근무실적 우수 시, 평 생근무 가능, 명문대 출 신 우대, 가정환경 좋은 신 분.
☎ 018-134-0000

요리, 회계(가정용), 가정 의례, 환경미화, 서부모 봉양법 등 배우면서 일하 실 분(연수 중 엄마 자격 중 취득 가능, 수료 후 신 들린 여자 자격 부여)
☎ 018-212-0000.

전화 받아주시고 집 지 커 주실 분, 살림 잘하시고 순종적인 성격 가지신 분 우선 채용, 여 25-30세.
☎ 016-780-0000

가정관리인으로서 부와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30세 이하 여성 환영, 서 정희형 우대, 30평 아파트 확보.
☎ 017-284-0000

직업 소지자, 각종 가내 도구 담보로 동업과 분, 단 가정관리 겸업 가능하고 속식 가능한 신 분, 여성 1인 모집, 초보 미인 우대.
☎ 011-9689-0000

동반자 찾음. 사법연수생 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나 갈 분 찾음. 미모와 지성 을 겸비하고 여성적인 성 격을 가지신 분, 초보자 절대 환영, 25세-27세, 주 택소지자 우대.
☎ 017-703-0000

사람을 찾습니다

필남업마 모든걸 용서 할테니 빨리 돌아오. 갈아임을 속웃이 하나 도 없소. 올때 고통어 한손과 파 한단 부탁하오. 연락처 1234-0000

www.jungmaeAll.com

Happy end?!

- 결혼, 그 환상에 관한 보고서 -

둘 (itwolips@dreamwiz.com)

#1. Intro... 공주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의 줄거리는 참 단순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심지어 콩쥐마저, 예쁘고 착한 여주인공들은 죄다 시련을 이겨내고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행여 나쁜 마녀나 계모가 공주의 행복을 방해할까봐 가슴 졸이던 그 시절, 우리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도 동화를 비롯한 모든 로맨스 소설, 만화, 드라마, 영화들은 결혼이라는 행복한 결말을 미화하고 또 찬미한다. 청혼, 키스, 하얀 웨딩드레스, 사랑스런 아기와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의 미소 등등. 그들 모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해서야 비로소 행복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듯, 사랑과 연애의 패턴 역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얼굴 한 번 못보고 결혼한 할머니와 '미워도 다시 한번'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우리는 '사랑

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세대이다.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짝짓기 TV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성공적인 만남의 과정을 연일 방송하고 있다. 또한 연애가 소식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연애인들의 열애설과 결혼설 등이 난무하며, 토크쇼에서는 연애인부부들이 등장해 그들의 결혼생활과 화려한 집을 소개하고 행복을 과시한다. 뮤직비디오는 물론 CF에서도 연애와 이별을 소재로 멋진 화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워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연애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모자라는 것으로 여겨지는 연애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애 풍속도가 급변하고 다양각색의 사랑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라는 공식이 변함없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동거를 비롯한 다른 삶의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의 풍토를 비추어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곧 결혼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므로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연애와 사랑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런 까닭에 어린 십대조차 자신들의 사랑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해 속삭이며, 연인들은 결혼을 해야만 지금의 사랑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미래의 결혼을 그려보려 한다. 이별은 불행한 결말, 결혼은 행복한 결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구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둘이 살면 참 좋겠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아이는 멋이 좋을까, 여자아이가 좋을까, 남자아이가 좋을까. 한 달에 한번은 꼭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자. 신혼여행은 몰디브 아니 지중해로 가는 거야.....'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 속의 결혼은 늘 아름답고 행복하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연애와 사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광고 속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이미지로 등장
하고 있다.



#3 결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

결혼에 대한 동경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비단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연인들의 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상품광고와 기업광고가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핵가족의 행복한 모습은 '대우가족'을 선두로 삼성, SK 등 많은 기업광고에서 사용되어왔다. 또한 그림같이 멋진 집과 아이들(헤미리쥬스), 예쁘고 젊은 주부와 가정적으로 보이는 젊은 남편(해표식용유), 함께 쇼핑하는 단란한 가족(E마트) 등등 이런 광고 속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별로 상관없이 보이는 국가정보원 광고에서조차 밝게 웃는 가족의 모습이 등장한다. 과연 그것이 누구의 욕망이 반영된 것인가를 짚어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음모론일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광고라고 하기엔 CF 생산자의 입장인 기업과 정부의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절대적인 모습 중 하나라는 점이며,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가의 번영이 일맥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뿐 아니라 여성잡지와 인테리어잡지, 연예인출신 주부들의 책들 역시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 생산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서정희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 주부들의 멋진 솜씨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더불어 이를 가꾸는 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철마다 집안의 인테리어를 화사하게 바꾸고, 유행에 따라 식탁을 새롭게 장식하며, 아이들 옷을 손수 준비하고, 세련된 남편을 연출하는 코디법을 알려, 요리사 뽀치는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장면들.

센스 있는 아내가 있어 남편들은 행복하고, 살림 잘하는 엄마가 있어 아이들은 건강하다. 집은 곧 가정이고, 깨끗하고 안락하고 화사한 집은 곧 행복한 가정이다. 솜씨 있는 주부가 존재하는 집은 항상 행복하다는 법칙은 굳건하다. 이렇게 매스컴과 출판물의 연출된 사진

물을 우리들에게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그 사진 속의 가족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이고 풍족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설령 부모나 주변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았다고 할 지라도, 그래서 죽어도 결혼은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더라도, 줄곧 매스컴과 학교교육에서 '家和萬事成'을 배우고 익힌 우리들에게 결혼이란 5지 선다형 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우 확률 높은 인생의 답안지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결혼에 대해 비관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마 내가 그렇게 살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혹은 '나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나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4. OX퀴즈, 결혼이나 성공하는 직장여성이나

IMF로 인해 심각해졌던 취업난이 경기회복으로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하나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더욱이 여학생의 경우엔 아직도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 진학은 경쟁이 심해 어렵거니와, 학비를 부모님께 타 쓰자니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기엔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취업을 하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 무렵 TV에서는 연일 리브스토리와 로맨틱한 결혼을 그려내고, 주위에서 차츰 누가 잘 나가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별로 뛰어난지 못했던 친구가 괜찮은 남자친구에게 받은 수십 만원 짜리 선물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진다. 솔직히 남들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학벌과, 중산층 정도의 집안, 보통 정도의 외모를 소유한 대부분의 여대생들에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화려하게 사는 미시 주부들의 이야기는 그리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맘만 먹으면 그녀들보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하겠다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주부로
살겠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 더 잘살 것 같아 보인다.

이쯤되면 자신의 직업을 갖고 성공을 추구하는 직업여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우리들은 어떤 말을 떠올리게 된다. '여자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을 열 받게 만들던 그 말들이 불안한 현실에서 오는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오버랩 되면서 '그래 시집이나 갈까'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결혼이 아무리 예쁘고 낭만적으로 보이더라도 결혼을 하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해내기 힘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하겠다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주부로 살겠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백 번 양보해서 남편 될 누군가가 가사를 분담하고 양육을 분담한다고 약속한들, 그게 정말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시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복잡한 관계들을 어떻게든. 기혼 여성인 나 자신이 직장에서 남성들과 차별없는 경쟁을 한다거나, 가사의 부담 없이 일에만 열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상충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다시 마음을 고쳐 독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서도 매스컴에 등장하는 미시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줌마가 아닌 미스 같은 기혼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또 한번 혼란된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며, 엄마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힘든 결혼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혼란스러워진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결혼을 하겠다고 혹은 독신으로 살겠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과 성공적인 커리어라는 이미지 속에서 여러 번 갈등한다. 여성들에게 행복한 결혼과 직장에서의 성공은 영원히 만나지 않을 평행선과 같다. 그런 까닭에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들은 이 둘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혼생활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다 잘해나가는 슈퍼우먼은 「성공시대」에나 가끔 등장하는 희귀종일 뿐더러 우리들은 그녀들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돈이나 사랑이나를 고민하는 심순애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새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호지부지 따라가게 될지 모른다.

46. 알면서도 속아주고 속고 싶다.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고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결혼이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가장 빠르고 쉽게 그 길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살마 내가...' 혹은 '나만은 다르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미래를 장미빛으로 장식해가고 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미지가 잘 팔리는 이유가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 혹은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결혼생활이 정말 전무와 같아서 낭만과는 담뿍은 차질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척 속아주고 있고, 또한 그냥 속고만 싶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현듯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외롭다고 느끼면서 생각한다. '결혼은 안 해도 손해, 해도 손해' 라면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찢고 치는 고스톱 판의 정해진 룰 속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 혼자 잘하면 잘살게 될 것이라 믿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본다. 혹시 아는가?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듯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부유한 결혼생활을 하게 될지. **47**



결혼용어 大辭典

요즘 여자값지 않은: 열라 순종적이고 착하며 정숙한 여인. 이런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들한테 이런 말하면 '촌년'과 동일어로 생각하여 매우 싫어함.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남자는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용서받아야할' 당위가 있다는 뜻. 자기가 벌여놓은 주석잡기 판이 부인에게 들킬 시, 이 말을 이용해 모든 죄를 사회 탓으로 돌리며 열라 개김.

반대말-여자가 집안일 하다보면: 어떤 용례 없음.
애를 낳아봐야 안다: ① 애도 안 낳아 어린 수컷들이 종종 평등사상을 가진 여자에게 충고할 때 사용하는 말. 저들은 뭘 알아서 이런 충고를 하면서 감치는지 알 수 없음.

②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딸에게 미화시켜 말할 때 사용. 애를 낳고도 '그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알 때까지 낳으란 말이 더냐.....'

시집이나 가지: 25세 이상의 여성에게 주변 사람들이 남발하는 말. 여자가 사회적으로 잘나가거나 또는 못나가는 상황에서 동시에 사용됨. 여자는 시집가서 애나 보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음.

이혼 축하합니다: 불행한 결혼 청산을 전심으로 축하하는 말. 세상의 부부 중에는 이혼을 통해 오히려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음을 뜻함.

우리말 이제 시집가도 되겠구나: 부모는 나름대로 딸자식을 기록히 여겨서 하는 말이 나, 그 이면에는 남의 집에 넘겨야 한다는 서글픔과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도가 있음.

크리스마스 케익: 24일에는 비싸게 팔리다가 25일부터는 헐값에 팔리는 크리스마스 케익에 여성을 비유함. 유사한 금언으로 '24살은 금값, 25살은 은값, 26살이 넘어

가면 동값 이 있음.

산다는 게 그렇지 뭐: 문제의 핵심을 스리슬쩍 넘어가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말.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을 들으면 기운이 쏙 빠짐. 자신의 처지를 자위하거나 체념할 때 사용하기도 함.

결혼 적령기: 누가 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결혼하기 적당한 시기를 박아놓은 것. 편히 한번 바꾸려고 했다가는 이상한 년으로 찍히기 십함.

평등부부: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를 일컫음. '짜가 평등부부'라는 유사품 주의 요망.

짜가 평등부부: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성이 대외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 평등부부를 강조하는 경우.

황혼기: 결혼이 '말똥 향'이었다는 가슴아픈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

폐물: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기 위해 서로의 집안에 바치는 장땡의 예물. 폐물을 밝히다가 폐물되는 인간이 많음.

기혼 VS 미혼, 노처녀, 이혼: 미혼, 노처녀, 이혼은 기혼(既婚)과 대립되는 어휘로, 결혼이라는 완성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거나 어긋나있음을 나타냄. 특히 히스테릭 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의 노처녀란 말

은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워지는가를 잘 드러냄.

편부모: 부모 중 한 사람이 결핍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은연중 이런 결핍 상태에서 자라난 아이가 제대로 자랄 리 없다는 편견을 담고 있음. 맘이 주는 선입관을 벗어나기 위해 '요즘은 '한부모'라는 말을 사용함.

미혼모: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감히 아이를 낳았다는 비난을 품고 있음. 이보다는 '독신모'란 표현이 적절함.

혼절(婚切): 결혼에 집중된 관심을 끊겠다는 의미. 유사한 말로 '혼(婚)떼는 여자' 있음.

혼란(婚亂): 결혼은 전쟁임을 나타냄.

혼사(婚死):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친다는 뜻.

미시족: 능력있는 남편 만나, 돈 있고 시간 있어보이는 언니들. 아줌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오만잡것에 신경 곤두세움. (예) 처녀처럼 보이기, 버릇없는 아이 만들기 등.

신들린 여자: 가부장신에 둘러싸인 가부장보다 더 일정적으로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여자. 실로 재수없는 가부장적 아들만 들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영(boni11@dreamwiz.com)

혼났다가? 일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긁어본다
그러나 모든 복권이 당첨 복권은 아니다
나는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다

인기주례인 왕진보씨의 결혼 주례사

결혼이야기

행복한 그녀의 이야기

청혼: Blue wedding

(동화) 레몬 이야기

(만화) 즐거운 우리집

할배도사에게 물어봐



땀땀따~단~

...에... 그래서... 신랑 나가장 군과 신부 전순종 양에게 각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은 서로가 설령 바람을 피고 있더라도 모든 척하며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혼하지도 않을 거 써워서 뭐가 남습니까? 몸도 축날 것이며, 그 경제적 손해... 뭐, 그런다고 피던 바람을 안 피겠습니까? 저도 해봐서 알지만... 아니, 그게... 예... 제 말은 가정이란 중요하고도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양, 항상 **가정을 지키세요.** 괜히 나돌아 다녔다간 남편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부부싸움에 함부로 관여 못하는 거 아시죠? 예... 언제든 밥을 할 수 있는 태세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왕 집에 있을 거 어떡하면 남편에게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하십시오. 아 참, 전양, 혹시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아아, 네... 뭐, 요즘은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좋은 신부감으로 환영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세대다운

일이죠. 허허허... 하지만, 전양, 설마 바깥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진 않겠지요? 그리고 아이가 생긴 후에는 당연히 직장을 그만 두시겠지요? 다른 집 가장 밥벌이를 뺏아가며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인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힘, 어쨌든, 신부 전순종양, 당신은 남편에게 맞을 때나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의해 직장을 떠나야 할 때나 하루종일 집안일에 찌들릴 때나 신랑 나가장 군을 평생 사랑하며 가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그리고, 나군, 바깥일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이 '당신이 집안일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라고 말하면 들은 척도 말고 TV를 보세요. 돌리는 말에 의하면 진짜 힘들다더군요. 그리고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아니, 예... 제 말은 남자도 가끔은 돕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요. 물론,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 맘에 걸리지만... 그리고, 그런 행동은 당신을 좋은 남편으로 만들 겁니다. 예... 그러니 가끔은 '내가 뭐, 도울 것 없어?' 하고 말하세요. 하지만 '설거지는 내가 하지.' 같은 말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사를 분담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저 도와주고 싶기는 하다는 의사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그걸 왜 해야 합니까? 여자가 당신 집에 와서 밥해주고, 빨래 해주는 행복감... 그것을 당신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신랑 나가장 군, 아내가 맞을 짓을 했을 때나 아내의 직장을 그만두게 할 때나 집안일을 도울 의사를 표현할 때나 신부 전순종 양을 평생 사랑하며 가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자, 이로써 당신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맹세를 잊는다면 당신들은 모두의 비난과 멸시를 피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하객 여러분, 당신들이 그랬듯, 가장 보편적인 부부로서 분명히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이들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아이와 아이의 아이를 통해 반복될 그들의 결혼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부부에게 부디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담(dammy@dreamwiz.com)



행복한 그녀의 이야기

다시(출판기획 달과 입술)

그녀는 올해 48세의 주부로 대학생 아들과 딸이 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의 사장으로 제법 가정적인 사내다. 23세부터 전업주부. 이것이 그녀가 가진 이력의 전부이다. 결혼한지 19년만에 그녀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때부터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상을 만났다. 그녀는 가끔 확인하듯 묻는다.

"나는 정말 행복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정말 행복해.

그녀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나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 된다. 정말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질문의 이면에 깔린 불안감들을 감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적당히 말해 버린다.

"엄만 좋겠수. 행복해서..."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두 번째 질문.



"네가 보기엔 내가 불행해 보이니? 나처럼 살기 싫으니?"

"..... 뭐. 나쁘지 않아요. 그만하면 엄마 세대에서는 잘 사는 거지. 뭐."

"그래. 너희 세대는 또 다르니까. 넌 공부도 많이 했고... 나랑은 다르게 살거야."

조금은 섭섭한, 그러나 부러워하듯 목소리로 그녀는 말한다.

"훨씬 멋있게..."

그녀는 대학을 다닌 적이 없다. 그녀에게 있어 대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보증수표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딸이 세칭 명문대를 다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 아마 그녀가 삶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녀는 분명 그것을 자신이 대학을 나오지 못한 탓으로 돌릴 것이다. 다만 학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써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당시 그녀에게 기회로조차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애초에 그녀에게 선택이란 없었다. 결혼만이 유일한 길이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 유난히 자기규율이 강했던 그녀는 눈물나게 완벽한 전업주부가 되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너무나 완벽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런 그녀가 너무나 싫었다. 정말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난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녀가 가증스럽게 보였다. '당신은 사실 행복하지 않아.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 왔는지 보라구!'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수혜자인 나는 그런 말들을 차마 입밖에 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나는 그것이 단순히 가식이 아님을 깨달았



다.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기. 그것이 그녀의 생존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활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 일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제까지의 삶을 흔드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아마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기 시작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까지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정말 많은 시간동안 혼자 고민했을 것이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삶이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덧없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상황은 하나, 반응은 가지가지

나에 대한 그녀의 감정과 태도는 그녀의 질문을 받을 때의 내 심경만큼이나 복잡하다. 적어도 받아들이는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주된 감정은 부러움이다. 많은 경우 이것은 나에게 자신을 투사하여 타인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드물게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막연한 동경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느 날 인가부터 그녀는 나의 낮은 귀가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는 말이라고는 그저 '넌 좋겠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이런식으로 사람을 비굴만큼 여유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갑자기 그녀가 엄마로 돌변할 때가 있다. "아니, 다 큰 계집애가 그렇게 잠을 아무데서나 자! 아예 들어오지마!..." 이때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녀는 뭔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나의 반응 또한 오랜동안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사실 나는 그때의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 완전히 얼어붙곤 했다. 하지만 요즘 그런 그녀의 반응을 대하노라면 좀 아상한 기분이 든다. 갑자기 뭘 옛날 버릇? 오늘 무슨 일 있나? ...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내 이야기가 나온다. 대체로 스케치여행을 가아하는데 남편의 부부동반 모임 때문에 못갔다가나,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과 말다툼을 했거나, 남편이 한눈을 판다고 예상되는 상황 같은 것들. 그녀는 늘 지겨워하면서 그것들을 얘기한다.

'넌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뭐가 걱정이야. 능력있겠다. 괜히 어디서 엄한 놈 만나 고생하는 거 보द्या 그게 훨씬 낫지.'

원래 문제가 있을 때 그 근원이 아주 강력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죽만 울리는 경향이 있다. 그 답답함은 남편도 아들도 아닌, 딸에게 향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 그녀가 보이는 태도의 결정판은 남들과 얘기할 때이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입을 통하여 정당화되고 온갖 의미가 붙여진다.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다르잖우. ... 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살아. 일이 너무 바빠서 밤도 며칠씩 샌다니까. ... 능력만 있으면야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되지. 꼭 결혼해서 남의 식구들 눈치보면서 살 필요있나? 뭐니뭐니해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딸

“엄마, 나 진짜 그래도 돼?”

이내 당황하는 그녀.

“그...그럼,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갑자기 엄마의 의무가 생각나는 것일까? 말을 돌리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다시 이상한 기분이 된다. 그녀를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녀가 이미 그녀의 행복이 어떻게 주조되었는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본다. 그 동안 스스로에게 행복하다고 세뇌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벌여왔던 구분짓기들, 혼자 사는 여성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적 폄하. 남편에 의하여 위치가 결정되는 그녀는 굳건히도 ‘난 행복해!’라고 외치면서 그 이외의 부류들을 불순한 것으로 싸잡아 매도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녀 밖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경계해 왔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딸이 그 속에 있기를 바라지 않을 지도 모른다. 아마 그녀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A도 아니고 ~A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아닐까? 나는 앞으로 그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아주 궁금하다. **두하늘**



청혼 : Blue wedding

to : 사랑하는 그대에게

오늘 그대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아 실망하는 당신의 모습은 제 맘을 씁쓸하게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난 단지 당신의 연인이고 싶었는데 동상이몽이었나보군요.

난 당신과 연애하는 것, 섹스하는 것, 아이를 만드는 것, 함께 사는 것들이 싫은게 아니에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을 경계로 합법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결혼 밖에 있었다면 불륜이다, 혼전 성관계다, 편부모다, 동거다 하는 매우 문란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들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지극히 건전한 것으로 돌변하는 것은 웬일인가요? 결혼제도는 그 모든 것이 용납되어 장려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단 말이지요? 안해도 되는 것들을 해야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강력함.

사실 연애, 섹스, 결혼, 출산은 서로 다른 욕망들이지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개별적인 욕망들을 굳이 결혼



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꺼번에 소화시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난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날 두고 사람들은 비난을 하겠지요. 하지만 난 피카츄 스티커 하나 들어있다고 달력 피카츄 빵을 사버리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는 그 빵을 먹고 제하느니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는 게 낫겠지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 당신과의 사랑을 갈아먹고 싶지 않아요.

그때요, 결혼은 사랑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지요. 내가 결혼식을 하는 경우, 당신의 친척들에게 혼수를 기준으로 내가 가난한 집안이거나 부잣집 집안 딸이라고 불려지는 게 싫어요. 사실 얼굴을 모르는 당신의 친척들에게까지 예단을 보내는 것은 그다지 사랑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결혼 후에는 당신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될 거예요. 그 관계가 다행이든 타협이 가능하여, 내가 그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결혼이라는 부리 깊은 전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아들인 당신, 나와 당신의 부모님 사이에 어느 정도의 논쟁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당신과의 관계 이외에도 내가 원치 않는 관계까지 맺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보여야 하는 반응까지도



관습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내 통제 밖에 있다면, 굳이 결혼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은 이런 불편함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하abez지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결혼해서 사랑한다... 과연 어느 것일까요? 그러고보면 중매로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해놓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사랑과 결혼은 참 뻔뻔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뻔뻔한 사랑은 어떤 미묘한 것을 포장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뻔뻔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둘이 노력하여 이상적이며 동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요새 당신의 상사는 당신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결혼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나라에서 기혼 여성을 우대하는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아, 싸구려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 몇몇이 있군요. 아니, 내가 운 좋게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가정해보지요. 거기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에이, 이래서 아줌마는 안된다니까'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저는 못남자들보다 수백 수십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애들도 커나가고 돈도 많이 필요할텐데'라며 남자에게 더 많은 월급과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아무리



착하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애들도 커나가는데 집에서 애나 보지 그래?' 라며 술술 눈치를 주는 이런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차피 탁아시설도 부족하고 회사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 누군가가 아이를 길러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회사를 나와 아이를 맡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나는 그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여자'가 되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왜지요? 물론, 내 뱃속에서 남은 아이이기 하지만 당신과 내가 남은 '우리'의 아이잖아요. 그게 싫다면 친정엄마에게라도 맡기고 계속 회사에 다니라구요? 나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었던 엄마에게 또 다시 아이를 맡길 순 없어요.

남자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결혼을 권하는 우리 사회에서 집이란 곳은 당신이 다음날 근무를 위해 쉬는 공간이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또 결혼 상대자인 나 역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요? 하루 종일 일에 지친 당신이 아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일 중독자가 되어 가족을 위해서는 인색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집안 일에 대해서는 또 어떻고요? 우리 둘이 똑같이 회사에 다니며 둘다 피곤한 상황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결혼하라는 당신의 상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당신은 쉬고 내가 일을 도맡을 가능성이 더 크



겠지요. 아니, 혹시 월수금은 당신이, 화목토는 내가 저녁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식사준비를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당연히 나누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런 상황들은 당신 개인만을 탓할 문제도 아니지요. 부엌은 여자의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당신이 싫거지 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을 당신의 식구들, 또는 매일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아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채 '일주일에 한번 아내가 되어본다'라고 말하는 남편을 아물답게 그려내는 광고 카피가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자의 공간을 미리 정해 그녀가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사회의 여러 요소들 또한 남 불편하게 만드네요.

당신이 아무리 착해도 혹은 평등한 관계를 위해 우리 둘이 노력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네요.

사랑한다면 그까짓거 못하냐고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해요?

나쁜 여자라 해도 좋아요. 둘다 행복해야 할 사랑에 우울한 상황까지도 담으로 담려 오는 것이라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남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 완성하는 것일테니까요.

당신의 연인 카리로부터.

카리(carilips@dreamwiz.com) 999

레몬이야기



혹시

당신이 여행을 하다가 집집마다 뒷마당에 레몬 나무가 있는 나라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 곳은 엘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매나온 나라일 것입니다. 레몬나라... 그 마을의 어른들은 매 끼니마다 레몬을 먹습니다. 식사시간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레몬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말합니다.

"레몬을 먹어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단다.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알려줄 게야. 하지만 그 때 먹지 않고 자꾸 미루게 되면 넌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단다. 뒤늦게 레몬을 먹고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좋지 않아요. 혼자만 아이로 남으면 슬프지 않겠니? 그리고 기억하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레몬뿐이란다."

레몬나라의 구석진 마을에 엘과 카리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니다. 둘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그 둘은 마을에서 멀리 벗어나 국경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새까맣 열매 말야."

엘이 어긋 나라에 심어져 있는 포도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새까맣고 불꽃같이 보였으며 그냥 손을 내밀어서는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 열매도 먹을 수 있는게 아닐까?"

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레몬뿐이야."

"하지만 난 저걸 먹어보고 싶은 걸. 레몬은 사실... 먹고 싶지 않아. 난 엄마 혼자 레몬을 먹으면서 인상 찌푸리는 걸 자주 봤거든. 난 저 열매를 먹으래."

"안돼! 그런 이상한 열매를 먹으면 넌 괴물로 변할 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넌 그 말을 믿니? 겁쟁이."

임들게 포도를 따 엘은 포도알 하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맛있단다. 약간 시큼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어. 전혀 새로운 맛이야"

"제발 그만! 그렇게 맛있을 리 없어. 먹을 수 있는 건 레몬뿐이잖아. 아... 넌 괴물이 될 거야"

"넌 겁이 너무 많아. 괴물이라니... 맞아, 카리아. 난 저쪽으로 더 가볼래. 또 다른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레몬뿐이라는 말이 난 이제 믿기지 않아. 어른들은 왜 다른 열매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을까?... 왜?"

엘은 웃으며 그렇게 국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리는 그런 엘을 넋을 잃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카리는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레몬이 아닌 다른 걸 먹다니, 정말 이상한 아이야. 레몬처럼 향긋하지도, 보기 좋지도 않은 불꽃같은 열매에 그렇게 매달릴 게 뭐람. 먹을 수 있는 건 레몬뿐이잖아. 아직 못 먹어 보긴 했지만 레몬은 분명히 굉장한 맛일 거야. 아... 마을로 돌아가 엘의 이야기할 하면 뭐라고 할까? 함께 나갔던 나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지는 않을까?"

그날 저녁, 엘의 이야기를 하며 카리는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아, 아니야... 네 친구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카리는 곧 레몬을 먹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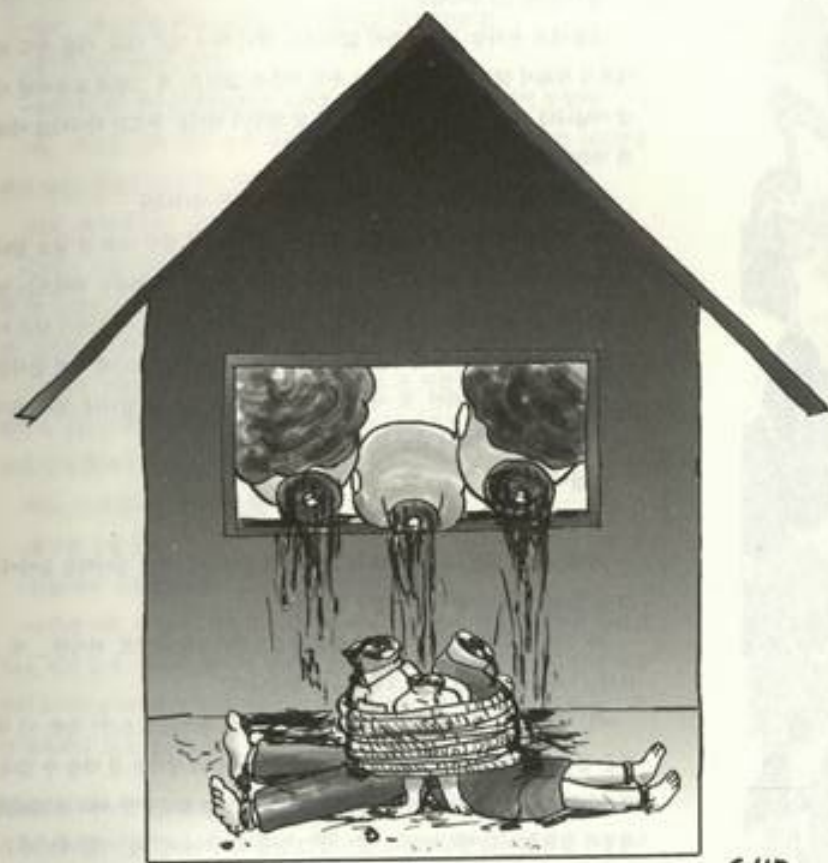
"그럼요, 엄마. 근데 엘은 왜 매났을까요? 분명히 맛있는 열매를 먹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개 생각이 나는 걸요. 그 아이의 마지막 웃음이 말이에요."



zimu







할배도사에게 물어봐

-저... 맘도 답답하고, 제 앞날이 궁금하기도 해서...

-집안에 양기가 부족하군.

-소문대로 용하십니까. 아들이 없어서요. 딸이 하나 있긴 하죠. 사실 저도 와이프가 원하지 않는데 아들 낳자고 우길 마음은 없어요. 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는 경남도 아나어서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무조건 하나라고 아내와 약속하고 시작했지요.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요.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니라...

-네. 그렇지만! 부모님 때문이에요. 문제는 큰 형수님이 딸만 내리 셋 낳고 끝나자, 이젠 저희더러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십니다. 와이프는 일을 합니다. 네, 좋은 여자지요. 하지만... 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 딸은 아들놈 바라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예 얘기만 꺼냈다 하면, 또 아들 타령이라며 둘은 척도 안 합니다. 얼마 만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자가 댄날 일일, 일 타령이지요!

-아들이 보이네. 보여.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헌데... 애써 길렀으나 품안에 뱀을 키운 형국이로세. 부모 잡아먹을 놈이야! 그놈 들어갔다가는 자네가 제 명에 못살겠어.

-아. 그렇습니까? 하긴... 요즘엔 딸들이 효도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 도사님? 아들이 생기면 정말 그렇게나 안 좋습니까?

-허! 아직도 못 알아들었군. 자네 그 나이에 인생 중치고 싶은가? 쫓쫓. 이 부적을 침실 문밖에도 꼭 붙여놓게. 만에 하나라도 아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네. 정관수술인지 모시긴지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는 하더구만. 아무튼 자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 명심하게나. 반드시 그놈을 막아야하네. 자, 이만 가보게나.

-아... 아들 낳고도 편찮을 묘안은 없는지...

-어허! 어서 이놈을 끌어내게나!

-도사님! 망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도 다 있습니다. 얼마전 제 집사람이 말도 없이 새벽 4시가 다 돼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애엄마란 사람이 그 시

간까지 싸돌아다니는데, 애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했습니까? 제가 화를 좀 냈지요. 그랬더니 아. 이 여자가 미쳤는지 칼을 들고서 설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악을 쓰지 뭐니까? 별수 없이 그날은 여관서 자고, 다음날 피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년이 아이들을 데리고 천장에 가버렸지 뭐니까? 그러고서는 이혼을 하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까지 자기가 다 데려가겠다고요. 제가 누구 먹여 살리느라 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 여편네가 글썽 함의이혼이 안되면 재판까지 가겠다고지 뭐니까?

-어허... 피가 피를 부르느니라. 이 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끼! 이 놈! 약수신(藥水神)이 노라셨느니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아... 사실은 제가 잠시 아주 잠시 바람을 피웠습죠. 하지만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대다 뛰다 해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어허. 네 죄가 어디 그것뿐이더냐?

-그게... 사실은 몇 대 치기도 했었죠. 예, 취해서 한 짓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심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엔 거의 안 때웠습니다! 그날이 좀 예외였죠. 그리고 그날은 집사람이 충분히 맛을 봤을 했구요!

-[부채로 정수리를 내리치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자네 자칫하면 불법에게 생겼느니라! 가족폭력 특별법도 모르느냐? 어쩐지 중년 남자가면서 관재수가 있다 했더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안 됩니다.

-불행한 중생이로구나.

-안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사님. 무슨 방법이라도?

-나한테 이럴 거 없네. 가보게나 하지만 이제 와 소용이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으나, 세겨 듣게. 남은 인생의 행 불행은 오직 부인 손에 쥐어져 있으니 일단 도장부터 찍어주고 마누라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야겠구만. 알았나? 네 놈 기운이 불쾌하다. 물을 흐리는구나. 썩 물러가거라!

할배도사 - 새벽에 약수 뜨러 들에 아산에 올랐다가, 70세의 늦은 나이에 신기가 내릴. 그후로 참담한 신병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 신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같은 공이 솟은 곳을 찾아 구름처럼 떠도는 할배도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약수터나 계곡을 지나다, 흰 도로 차림에 등 쪽을 향해 평평한 흰수염 할아버지를 발견한다면, 그는 할배도사일지 분명하다.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주위를 둘러보시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거처인 빨간 편지를 잊지 않는다. **주요작**

둘기(rebirth0@dreamwiz.com)

혼배는 여자



지금부터 나는 혼배는 여자다
혼전하는 사회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나를 짓눌러온 혼령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는 새로운 꿈을 꾸다

'썩그리'가 살아가는 곳
결혼을 거부한 여자 - 이시대의 '마녀'!
(이야기) 우리 사는 그대로
(인터뷰) 반쪽이네 놀러가기
세상에 이런 일이
(기획글) 가족은 움직이는 거야



명절날 큰덕

"시집은어제가나?"
(한제복터가 나를 침착한복인라는
이것으로 핑계대었다. 그러나 나의
시집들은 새책꽂이를 결코
떠나지않습니다.)

더블더블 호프

"준자 모셨나요?"
(아하. 이제라도 귀신따윈
안타고 다닌답니다.)

패밀리백화점

"파지사장이니네 손님, 알핀본 네타
이구걸하세요."
(오호라. 세수할때 머리띠로 쓰면
그양아면군.)

따블마트

"자, 밑이로 시금치 세단에저원"
(생강고에서 써어나갈 먹이들을 떠올
리며, 뒤어나온
농동자를 주워드립니다.)

옆집아저씨

"외롭지않아? 필요한거 있으면 어
제든기 나한테말해봐 으음~"
(반죽은주세로
아저씨기를생략 지독해)

2. 쌍쌍반점(신속배달)

"한그릇도배달되나요?"
"준기다려야하 되는데."
(‘준’ 기다라다가아사지전의싱그
리, 철가방문종도 몰랐는데.)

〇〇신용대출

"주매자금대출은기혼/무자녀우선
이안게알고계시죠?"
(여 참, 특이한답보로세.)

‘쌍그리’가 살아가는 곳

결혼을 거부한 여자 - 이 시대의 '마녀'

초이(델타페미니스트)

결혼은 여성의 이상적인 목표이다. 그렇게 믿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된다. 여성은 결혼으로 '완결'된다. 가부장제가 완성된다. 결혼을 거부한 여자들. 현대는 여자를 화형에 처했던 숯배가 아니어서 그런 야蠻인데, 하지만 여전히 화형을 하지 않을 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제도의 도덕과 규율에 얽히는 '마녀'들이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

한 '노처녀'가 있다고 하자. 그 여성은 의도적이지 않게 결혼이 늦춰졌을 지도 모르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여성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는 남성집단(여기에 물론 여성들이 끼어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 대부분 남성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을 상상해보자. 뭘지는 모르지만 저 여자에게는 무슨 결함이 있을꺼야. 자기한테 무슨 콤플렉스가 있을꺼야. 너무 여성스럽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싫어하지. 너무 기가 세서 남자들이 도망을 가는걸꺼야. 저 여자 처럼 남자들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아서 좀 이상하게 된 것 같다.....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결함이 있고, 그 여성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것으로 인식된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 '자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 여성은 그 스스로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다. 오로지 남성을 통해서만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 첫 20-30년은 누구누구의 딸로

존재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누구누구의 집사람, 또는 누구누구의 엄마로서만 존재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은 이미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인정되지만 여성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아무리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상상 밖의 것이다.

여성이 남성들 간의 상품적 교환물로 전락하면서 가부장제가 시작되었다는 엥겔스나 많은 인류학자들의 이론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다.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양질의 노동을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한 단위로서 핵가족의 이데올로기가 자리잡았고, 남성들의 소유물이자 교환물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이제 초역사적 '자연의 법칙'인양 인식된다.

여성들은 한 남자에게서 또 다른 남자의 소유로 넘겨져야 하는데, 또 다른 남자의

손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망측한 노릇인가?

퇴폐적이고 문란한 생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 대한 가장 광범위한 비난은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여성은 퇴폐적이고 문란한 삶, 비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여성의 '성'이다. 자신의 처녀성을 지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의 '성' 역시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결혼 전에, 결혼 밖에서의 여성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법적 결혼 속에서의 생식행위를 기반으로 한 성인 간의 이성애적 관계는 다른 모든 형태의 '성'보다 특혜를 받는다. 과학적 사고이든 일반적 생각이든 간에 남자는 적극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한 성충동





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사람보다는 종종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된다고 믿어진다. 반면 여자의 성적 관심은 약하며 분산적이고, 내면적 관계의 감정적인 표출방식 중 일부에 불과하며, 성적 관심이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남성의 성충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믿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렸을 때부터 포르노나 각종 매체를 통해 자신의 '성'을 실험하고 발전시켜나가고 (물론 포르노 등을 통한 남성들의 '성' 역시나 심히 왜곡된 형태의 성이다) 심지어 공격적이기까지 한 자신의 '성'이 장려되지만 여성은 정반대이다. 우리는 저 멀리 잔존해있는 할레나 여성 성기 절단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야만인들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부장적 사고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기나 여기가 동일하다. 즉 여성의 '성' 역시 여성 스스로의 것이 아니며, 남성의 2세를 출산하기 위해, 또는 절제하기 힘든 남

성들의 성충동을 받아주기 위한 것으로만 존재하고, 그러한 '정상적'인 사용 외에는 숨겨져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하니 결혼을 거부한 여성은 퇴폐적이고 문란하고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결혼을 거부한 채, 건전한 2세 출산을 위한 성이 아닌, 남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여성 자신만의 성! 이것이 얼마나 가부장제에 위협적인 일인가.

책임없고 이기적인 여자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인정받는다. 결혼은 여성에게 '성인'이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인 셈이다. 물론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인', 자기 자신의 삶이 있는 그러한 '성인'은 아니지만 말이다. 남성에게 적용되는 인격의 성숙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자신의 꿈을 아로잡기 위해 일을 하고 거기에서의 좌절과 희망

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여성이 책임있는 '성인'으로 인식된다. 그러한 '성인' 의식은 모성애나 여성 특유의 이타주의로 포장되고 과장되어 찬양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며 혼자 살아갈 것을 결정한, 또는 그렇게 실천하는 여성은 철부지인데다가 아무런 책임감이 없고 자기 생활만을 아는 여성으로 인식된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하여 하루 10시간 씩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또 청소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성 본연의 임무이고 심지어 '본능'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기적인 것으로, 마치 이 사회의 최대 병폐인양 여겨진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여성이 잠시 가정 밖으로 눈을 돌리면 책임 없는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자기의

꿈을 생각해도 이기적이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해도 무책임한 것이고, 고된 가사노동과 보람이 뺏긴 육아에 지치기 시작해도 미숙하고 덜 된 여성인 것이다. 우리가 언제 남성이 가정을 버렸다는 이유로 또는 아예 애초부터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책임감 없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봤는가?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 지탄 받는 것을 봤는가?

외롭고 신경질적인 여자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지탄할 것 다 지탄하고 손가락질 할 것 다 손가락질을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지면, 아마 '얼마나 외로웠니.....'라는 연민이 나올 것이다. 듬직한 아빠와 다소곳한 엄마, 미래를 향해 뻗는 아들과 귀엽고 예쁜 딸 -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찍은 가족사진을 머리 속에 그리게 된다.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뇌리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어 풀임없이 그 이미지를 강박하게 된다.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가족 말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추한 것을 택하는 것이며, 숭고한 사랑을 거부하고 비인간적인 냉정함을 택하는 것이 된다. 넉넉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삭막한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된다. 결혼을 거부한 여성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외로움뿐이다. 친구들 모두 결혼을 해버리고 자기 혼자만 외딴 섬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된다. 더군다나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누가 만나고 싶어하겠는가?

하지만 사실 외로움이란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왠지 모르는 소외에서 오는 것이 외로움이 아닐까. 세상은 돌아가고 자기 또한 거기에 발맞춰 교육도 받았는데, 결국 집

에서 그냥 있다는 그러한 느낌 말이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세뇌해야 하는 결혼생활에는 외로움이 없는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 남편만을 기다리며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채 살아가는 살아야말로 외로움이 아닌가? 맑스는 노동자가 자신이 행한 노동, 자신이 생산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에 주목하였다. 여성은 가정에서 또 소외된다.

맞다. 어쩌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외로워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삶이란 외롭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비정상적인 삶을 사회의 외곽으로 내몰고 나가기 위한 일종의 조직된 외로움이다. 외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대를 돌리기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외로워지는 것이다. 남들이 외롭다고 하면 자기도 어느새 그것을 믿게 될 수 있다.

여성이 타인과 맺는 관계는 한 남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두 여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세 아이 또는 네 명의 노인을 데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완벽한 핵가족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정상적이라 믿었던 그러한 가족의 형태는 알고 보면 일부일 뿐이다. 편부모, 고아, 미혼모, 친구들끼리의 공동체, 연인과의 동거, 독신자 등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이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모든 사회적 관습과 제도가 오로지 이성애적 결혼을 기반으로 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형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내몰아 넣기 때문이다.

결혼은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 이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그야말로 가부장제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 가야 하는 여성의 '희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혹자는 '희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성의 인생

목표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을 옹호하면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결혼을 거부한 채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 동거를 통한 동고동락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사는 그대로

/그 무거운 종이 한장의 차이/
/외딴방의 행복/
/이제는 말하고 싶다/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



그 무거운 종이 한장의 차이

박선희(daum cafe '동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역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또 하나의 가정을 꾸려 가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당연한 수순인 줄 알았다. 게다가 부모의 결코 순탄치 못했던 결혼생활로 인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탓에 하루 빨리 결혼을 통해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집으로부터 영원히 독립하는 것에 대한 나의 갈망은 도래에 비해 매우 집요할 정도로 컸다.

대학에 들어와 학내 총학생회와 인연이 닿아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환상을 가졌던 가족이 실상은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권리는 무시한 채 불합리한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남녀 이외에도 동성애 커플 등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나 사회의 지독히 견고한 편견 탓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기존의 혼인신고를 통한 가족 구성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약간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지난 1월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 7개월째 동거 생활중이다. 상대는 애초부터 기존의 혼인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많은 대화 끝에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 다만 우리의 동거 생활



동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은 오랜 기간의 숙고와 긴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경제 문제 등도 결부되어 시작부터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했다.

동거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비밀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얘기를 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기존의 혼인제도에 반대하는 일종의 '운동' 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실행에 옮겼다. 물론 양쪽의 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상당히 놀라거나 심하게 화를 낼 거라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양쪽의 부모들은 빠른 시간내에 사실을 받아들였으며, 주위 사람들 역시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그들을 설득한 것이라 여겼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었다. 단지 그들은 우리의 동거를 소위 '결혼'에 이르기 위한 전 단계쯤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단지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서 저지른 부도덕한 짓으로, 얼마 가지 않아 끝날 관계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다. 아직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 만큼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보지는 못했다. 우리를 진정 힘들게 하는 것은 다만 주위의 지독한 편견들이다. 우리는 위의 동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들 외에도 단지 한 사람이 상대의 호적에 일방적으로 복속되는 것이 아닌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인 가정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했으나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을 '가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젊어 한 순간의 치기이거나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법률혼' 관계 속에 편입될 거라 삼불리 단정짓는다. 그러한 편견들에 부딪히게 될 때 나는 아주



가끔은 그들에게 나의 선택을 이해시키려 들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외에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상대는 현재 장교 군입대를 준비 중이다. 현행 법률상 장교 중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영내 근무 후 영외거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대출, 주택청약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 모를 현실적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때마다 나는 그냥 혼인 신고를 해버릴까 하는 갈등을 겪을는지 모른다. 심지어 주위의 누군가는 내게 그깟 종이 한 장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내겐 그것은 결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다. 앞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택한 삶의 방식을 지켜 가기를, 그리고 소수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박]

외판방의 행복

외판방의 행복

하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난 지금 조그만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다. 말 그대로 독신이다. 독신으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째다. 독신 중에서도 아직 왕초보일 뿐이지만, 독신 생활로 인해 생긴 많은 일들이 족히 10년은 된 것처럼 느껴진다.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태고적 얘기처럼 느껴지고, 처음 독립을 하고 나서의 생경한 느낌들도 먼 옛날 얘기처럼만 느껴지니 말이다. 아마도 이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의미일 게다. 하지만, 많은 익숙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긴장관계들 또한 존재한다. 독신 그 자체에 대한 긴장들뿐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많은 긴장들이.

남들은 독립을 하게 되기까지 부모님들과 많은 불화를 겪게 된다고 하지만, 나의 경우엔 큰 어려움 없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의 근거 없는 믿음의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그 전의 잦은 외박으로 부모님들을 힘들여 놓은 탓도 있을테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결정하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가족으로부터의 해방감이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독신 생활은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생경했다. 집을 꾸미면서 내 스스로 못질을 하는 것, 내 이름 앞으로 날아오는 세



금 고지서를 받아 보는 것, 자취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나 가구들을 하나하나 사 모으는 것, 저녁 때 여러 가지 찬거리들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은 독신생활에 소소한 재미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경하게 다가왔던 것은 나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외로움이었다. 그 외로움은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를 대면하게 되면서 생기는 원초적인 외로움이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기와 대면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과 대면할 시간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혼자 살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집에서의 모든 시간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적막함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전화라도 걸려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들어와서 쓰러져서 잠만 자다 나가거나, 일부러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TV나 라디오를 큰소리로 틀어놓기도 했다. 내 삶에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 전면적으로 다가온 내 자신을 난 어떤 식으로 대면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애써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예전처럼 많은 외로움들을 느끼지는 않는다. 독신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터득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위로의 방식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저분하게 어지럽혀 있는 방이나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설거지들처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는 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긴장의 과정들이다.

혼자 산다는 건 그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그만큼 변하게 한다. 난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들이 언제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앞으로 내가 계속 독신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더라도 내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방해받고 싶지는 않다. **김정민**



이제는 말하고 싶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

김정민(주간 @zooma 기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가부장 공화국인 이 땅을 살아가는 여성 흡연자라면... 아마도 당신은 한번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적이든 공적이든간에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앞에서 끓어오르는 흡연 욕구를 느낀다. 그러나, 이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흡연 욕구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자괴감에 빠져보았을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이것 담배 하나 맘대로 못 피우는 개같은 세상이라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장황하게 여자와 담배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은, 이혼녀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조금은 쉽게 보이고 싶어서이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의 별거를 거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나는 아직도 세상에 대놓고 "그렇소, 나는 이혼녀요!"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고 있다. 이혼 한달 뒤쯤,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에 일관계로 알고 지내던 남자 사진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그 남자에게 당시의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혼한 사실까지. 이 부분이 실수였다. 내가 이혼한 여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는 좋은 작품을 위해 번민하던 예술가에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아



수로 변했으며, 껌뚝이 존칭어 쓰던 그 남자의 입에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반말이 튀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 자리를 구하는 것이 급한 일이긴 했지만 그런 남자로부터 일 자리를 주선 받고 싶은 마음은 찬물을 끼얹듯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미친놈, 이 혼한 여자는 세상 모든 수컷들의 밥이 야나, 이 새끼!"라고 한마디 해줬어야 하는데, 더 이상 불유쾌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우연히라도 그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못한 그 말을 꼭 해줄 것이다) 이 일 이후로, 처음 만나게 되는, 아니면 전에 알던 사람일지라도 이혼한 사실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이 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아닌가를 탐색하듯이.

엄마.....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러하겠지만, 나의 엄마는 유별날 정도로 이혼을 반대하셨다. 우리 사회에서, 딸년이 이혼을 했다는 것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의 심리적 상처는 물론이요, 인간관계의 망까지 위축시켜 내 부모님께서는 패가망신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또한, 곧 있으면 대학교수가 될 딸의 남편을 죽, 부모님의 사위를 영원히 곁에 두면서 대학교수 사위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막내딸이 낳은 손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 아이가 한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겪게 될 상처들에 대한 염려, 딸년이 앞으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 두루두루 걱정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모멸감 속에서 신음하며 개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 많겠지만 내 인생 살겠노라는 딸년에게 죽으라며 수면제를 내주시던 분이 내 엄마다. 설령 이혼을 하고 나서도 즐기치게 재결합하라는 압력을 넣고,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게 사위는 오로지 한 사람이라며 '수절을 지키라'는 듣기에도 거북스런 말을 하시던 내 엄마. 한동안

두사람은
이제는 없다

은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 수는 없었다. 왜냐, 누구보다도 예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 엄마를 알기에... 단지, 그 당시 엄마의 그 마음과 행동들은,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이며 말갈지도 않은 안정주의를 선호하는 것인지를 보여 준 것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받는 사회적 냉대와 질시는 여전하다. 이혼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와 주변의 속덕거림과 비아냥, 손가락질일 것이다.

성숙한 사회는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 인정되어 저마다의 개성과 선택에 의해 인생을 꾸려가는 사회이다. 그런 면에서 이혼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며 비인간화된 슬픈 현실을 보여 준다.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야, 상대방을 탐색하지 않고서도 누구에게나, "나는 이혼녀이다!"라고 아름다운 커밍아웃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런지.....



두사람은
이제는 없다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

이소희(한양여대 영어과 교수)

우리 사회 20대 여대생들에게 중심 화두는 결혼과 일이다. 대학 시절에 미래의 자화상으로 일하는 여성을 상정해 놓고 차곡차곡 모든 준비를 했던 많은 여대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단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2, 3년이 지나 소위 말하는 결혼적령기가 되면 혼(婚) 권하는 사회가 마련해 준 각본대로 삶의 초점을 결혼에 맞추는 예가 허다하다. 이는 낭만적 사랑과 행복한 결혼에 대한 환상을 대치할 만한 상상력의 공간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대중문화도 행복한 결혼까지는 자세하게 묘사하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전개에는 인색하다.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못물처럼 쏟아져 나온 여성해방에 관한 담론들은 주로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현란한 성 담론들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배해 온 유교적 가부장제의 막강한 영향력은 최소의 사회적 단위 공동체인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여성학의 지적(知的) 세례를 받고 자란 첫 세대(75·80학번)에 속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일상 생활은 페미니스트 의식과 가부장적 관습이 서로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었다. 결혼 적령기에 달한 이 세대의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친족 중심의 가족 관계가 이들이 선택하고 싶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못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2년 전, 이혼하고 방송작가로 활동 중인 한 친구가 자신의 페미니스트 의식은 이 지점에 오기까지 가부장제와 싸우느라 기력이 다하였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자신의 페미니스트 의식이 21세기가 아닌 20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출발점은, 즉 자신의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페미니스트 의식은 고조선 단계였기 때문에 그 여정은 누구보다도 험난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혼(婚) 권하는 사회가 제시한 결혼 각본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친구의 고백은 내가 그 동안 만나왔던 페미니스트 선배, 후배, 동료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만들어가려고 할 때 친족 중심의 가족 관계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경우들을 상기시켰다. 그렇다면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어떻게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혼(婚) 권하는 사회의 강력한 메시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각자가 갖고 있는 공고한 페미니스트 의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력? 아니면 가부장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심리적인 지지집단? 만약 지지집단이 필요하다면 최소의 사회적 단위공동체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1997년 1월 여성문화운동단체인 <또 하나의 문화>에서 여성주의 공동체 캠프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32명의 여자가 2박3일 동안 '여자로 살아온 이야기,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려는 이야기,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풀어놓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라는 전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 중심적인' 가족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안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



다. 이 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페미니스트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상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제까지 내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대안가족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웅감하고 지혜로운 여성들을 만났던 점이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두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경우는 여성학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가족을 만든 경우이다. 얼핏 보기에는 여자친구 둘이 그냥 함께 산 경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대안가족에 대한 페미니스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안가족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화 <결혼이야기>에 나오는 신혼 부부가 처약을 아래부터 짜느냐 위로부터 짜느냐로 실경이를 벌이면서 가족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것처럼 아들도 참기름을 1술갈 넣느냐, 2술갈 넣느냐와 같은 사소한 이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페미니스트 관점에 기초한 가족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 자신의 가족을 내가 만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점은 이성애 중심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경우는 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후배가 두 선배들의 권유로 집을 나와 그 중 한 선배와 같이 살게 된 경우이다. 이 후배는 이렇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동안 맺고 있었던 여러 사회적 관계들의 허와 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 관계의 출발이 우연이었든 필연이었든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게다가 당시 아들은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까지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자신들의 사업체를 굳건히 운영하면서 페미니스트 문화운동가이자 문화기획자로서 성공적인 대안가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소개한 두 경우 외에도 얼마 전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레즈비언 커플 역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족을 구성한



에이다.

또 4명의 여대생 친구들이 함께 대안가족 만들기 실험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앞의 두 경우는 모두들 20대 후반으로 여성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거쳤던 반면 세 번째 경우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했던 경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족의 개념을 넘어선 대안가족을 구성할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생활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공동체 생활에서 얼마나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서구에서는 여성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 인지적 (gender sensitive) 관점에 기초한 여성의 시민권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해야 할 때다. 여성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여성계에서 현재 추진 중인 호주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일상 생활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가? 둘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가족을 만들어 갈 것인가? 셋째, 누구와? 내 가족을 함께 만들어 갈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 질 때 우리는 혼(婚) 권하는 사회가 이미 준비한 결혼 각본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영인**



반쪽이네 놀러가기!!



지난 광복절,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뜻 깊은 날, 우리는 반쪽이네와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딸 하예린(하늘에서 내려준 예쁜 딸이라는 뜻)과 함께 행복한 가족일기를 만들고 있는 평등부부 반쪽이네 집.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혼페는 여자인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반쪽이네는 결혼을 통한 가족을

이루면서도 충분히 혼을 빼고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모델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그래서 더욱 할 얘기가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 반쪽이네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두입술의 즐거운 탐방기를 들어보자.

반쪽이네 시와도 인사를 나누고, 아차 딸 하예린과도 인사! 몇 마디를 나누며 우리는 자랑스럽게 인터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분은 평등부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최정현, 이하 최) 오히려 편해요. 모든 것을 분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평등부부니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백대로 남자가 애들...하는 식의 고정관념 같은 게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세요?

-(변재란, 이하 변) 그렇죠, 우리 사회에는 가족을 획일적인 모범답안에 끼우려는 움모 잡

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 가족은 아니죠. 우리 가족을 무슨 대안이라기 보다는 여러 삶의 형태 중 하나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부부들처럼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치사하게 싸울 때도 많아요. 단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로 서로를 묶으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개별성을 힘있게 주장한다는 것 정도죠.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부부라고 그러면 "남자가 대탈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남편의 사고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변)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살면 남자, 여자 둘 다 편해요. 남성에게도 혼자 "나는 가정을 짊어줘야 해"라고 생각하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가부장제는 남녀 모두에게 억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최) 가정 만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여자의 일(직업)을 늘리고 남자가 일을 즐기는 게 구조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여성운동 하는 쪽에서 그런 측면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평등부부라고 해도 남편은 시댁에 거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솔직히 부모님 눈치에 부엌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변) 결혼은 한 침대에서 여섯 명이 함께 자는 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두 부부와 양쪽 부모님을 말하는 건데...

-(최) 어~그 말 진짜 맞다(반쪽씨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나는 한국에서 여성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명절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고향에 내려가면 평등부부고 뭐고 어쩔 수 없거든. 흠흠...

두 분은 하예린의 육아를 같이 맡고 계실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변) 육아를 통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는 즐거움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남편은 복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둘 다 직업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육아 부담이 수월했던 점도 있죠.

-(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요. 남자는 자꾸 회사 핑계를 대거든. 가정과 사회가 같이 변해야지...안 그래요?

두 분이 남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계실대, 하예린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의 성 역할에서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최) 어릴때 친구집에 갔다 와서는 '저 집은 이상하다. 아빠가 밖에 나가고 엄마가 집에 있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변) 유치원 이후로 계속 아빠 엄마의 성 역할을 나눠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우리 집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엄마도 전업주부였으면...' 하는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한테 힘이 많이 되죠.

결혼 전에 어떤 가정을 생각하셨어요?

-(변) 저는 결혼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하

-(최)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나도 작품을 위해서는 직장은 물론이고 결혼이나 아이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후후. 물론, 지금도 작품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요.

-(변) 둘 다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강해요.

두 분은 어떤 가족을 그리고 계세요? 뭐,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은 생각해보실 작업이요?

-(변) 음... 우리 사회는 가족의 틀이 너무 견고해요. 모든 것을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예린은 동네 친구들이나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하예린한테는 가족이 될 수 있는거죠.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것도 훨씬 중심의 가족에서 비롯된 문제 같아요.

앞으로의 반쪽이네를 각각하게 묘사하시다면...

-(최) 음... 재밌게 살고 싶어요. 어릴 때 미래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학교도 가지 않고 공부도 안하고 하고 싶은 일 다하고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2000년이라고 썼었는데 벌써 그 날이에요. 후후

집의 공간 문제, 이런 건 관심이 많아요. 지금 집은 시녀와 왕이 사는 것 같은 남성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실은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꾸미면서 부엌은 구석에 몰아놓고... 여성의 공간을 중심으로 가져오고 크기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두 입술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긴데... 폭탄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굳이 전방에 갈 필요 있어요? 후방에서 보초 서도 되는데. 하하



처음에 분단 상황을 생각하며 반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반쪽이 최정현씨는 마지막에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다. 평등, 통일, 모자란 것을 채운다...등등 온쪽이를 꿈꾸는 반쪽이의 꿈이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는 즐거운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를 끝낸 후 신기한 반쪽이네 집 구경을 하는데... 마술 상자를 여는 것 같이 여기 저기서 신기한 것들이 많이도 쏟아져 나왔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집 구경에 혼이 빠진 우리들은 최정현씨에게 어울릴 법한 흙 냄새나는 밥집에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과천을 떠났다. 얼음 동동 떠 있었던 냉면은 시원했지만 반쪽이네를 나서는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간다면 그들처럼? 이갈2gal@dreamwiz.com

기서 신기한 것들이 많이도 쏟아져 나왔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집 구경에 혼이 빠진 우리들은 최정현씨에게 어울릴 법한 흙 냄새나는 밥집에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과천을 떠났다. 얼음 동동 떠 있었던 냉면은 시원했지만 반쪽이네를 나서는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간다면 그들처럼? 이갈2gal@dreamwiz.com

세상에 이런 일이...

#1 저는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혼수 문제로 신랄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결혼식 한 달 전에 만삭의 몸으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려던 애 아버지가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이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신의 성분을 따라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죠. 저는 너무나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2. 저는 4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와 살다가 몇 달 전 재혼할 상대를 만나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두 아이의 성이 달라지는 것이 몹시 마음아프습니다. 첫 아이를 위해 재혼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둘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3.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제가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적상 아이들이 남편호적에 올려진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현재는 법률상 제 호적으로 입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먼 훗날이라도 아이들과 제 호적을 합할 수는 없나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아이들이 결혼 후 분가하면 제가 모(母)로써 아이들 호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렵다면 모(母)가 아닌 제 3자로서는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호주제도는 법률적으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라고 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자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현행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남성 가장 아래로 나머지 가족의 호적이 기재되는 호적 편제, 아버지의 상만을 따르게 되어 있는 상속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로 그것이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에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주제는 여성, 아내, 어머니보다는 남성, 남편, 아버지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가족제도이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가족제도로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형태의 가족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 법은 언제까지 남녀 차별적 사고에 기반한 이런 가족제도를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호주제여, 우리는 더 이상 그대를 원치 않는다! **주요문**

나? 혼 배 는 여 자 !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였던 '결혼'을 미룬다. 이제 나에게 결혼은 당연히 저지러야 할 과일이 아닌, 수많은 가능성과 함께 지루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귀찮을지 모르나 불기 안일지나 나를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단 한가지 선택사항으로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 즉, 결혼

은 나를 이루는 수많은 정체성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더이상 나는 결혼 의무로

결혼 생활로, 결혼 상대자만으로도 평가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결혼의 의미를 축소해도, 여전히 '아마의 인생'이란 지리한 과정에 서 결혼이란 단명한 좌상은 지루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성에게 배워진 삶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내 안에 또 하나의 안전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좌절을 나 자신에

게 돌리기 위해 앞으로 내 삶의 방식을 생각한다.

1. 나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다.
2.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3.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다.
4. 더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된다.
5.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
6. 내가 가진 어려움을 남이 가진 것과 함께 고민한다.
7. 나를 배제하는 혹은 내 삶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기거이 논쟁한다.
8.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방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섹스한다.
9.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죄'를 단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당당하게 밝힌다).
10. 나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을 마음껏 밟는다.
11. 이상의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기 위해 경제적으로 자립한다(가장 중요하나 쉽진 않다).

가족은 움직이는 거야

-행복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편집위원회(two1ps@jinbo.net)

1. 수동태: I was born... but...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없다. 우리 중 그 누가 잘 나가는 집안의 뛰어난 유전자를 거부하고 구태여 지금의 부모를 선택하려 했겠는가. 이유 없이 태어나 그냥 소속되어 버린 현재의 가족. 사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부모를, 우리의 출생순서를, 혹은 형제 자매의 수와 친인척들을 바꿀 수 없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아마도 결코 변할 수 없다고 가정된 혈연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표현일 것이다. 설마 피가 물보다 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형제간에 재산싸움으로 서로 상처 주고 의절하겠는가. 단지 사람들은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혈연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혹은 그 원인과 이유를 해석할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피의 신비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가족은 개인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저 숙절없이 부모나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성인이 된 사람은 누구나 독립된 삶을 계획해 나가기로 기대한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신의 의지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사실 결혼은 피보호자로서의 삶을 청산하는 사람들이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



화 속에서 남녀의 결혼은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로 승인받는다. 이처럼 가족을 구성할 일이 유일하고 그것만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선택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2. 도대체 뭐가 가족이야?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지' 혹은 '이제 너도 시집가야지'라는 말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할 때가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남편 혹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살라는 말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혈연적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처럼 강요되고 권장된다.

이와 같이 가족의 기준은 오직 이성부부가 결혼을 통해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가족들을 불완전하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 가족은 불행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임신을 하기 위한 부부의 눈물나는 노력을 기대한다.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면 그 원인을 부모의 이혼 탓에서 찾으려, 편모 혹은 편부 가족을 그들의 행/불행과 상관없이 걸립된 가족으로 단정짓는다. 문제는 이 구별짓기가 단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편가르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편견이 허구일 확률은 황당할 정도로 높다. 우리는 현재의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 왔다.

딸 혹은 아들만 있는 가족, 신혼부부 가족과 40대 부부의 가족, 삼대가 모여 사는 가족과 찢찢이 흩어져 사는 가족, 할아버지와 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한부모 가족(편모/편부 가족), 그리고 혼자 사는 독신 가족 등등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나이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항상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동성부부가 사는 가족, 입양된 아이가 있는 가족, 뜻이 맞는 사



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가족,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가족, 서로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산가족 등등 소설이나 등장할 법하다고 믿었던 가족의 형태도 상상 외로 많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어느 가족하나 똑같지 않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이성부부 핵가족 형태는 많은 수가 있다고 단지 그렇게 믿어질 뿐, 실제 가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사는 가족도 그리 많지는 않다.

가족은 존재하는 형태 그 자체로 가족이며, 결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코가 높다고 해서 더 잘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행복이나 가치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이 가족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변화해 간다. '정상'이라는 하나의 표준만을 강요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비정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우스운 착각이며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해체'가 아니며 사회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지 가부장제의 가족형태가 사라져 가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여 가족제도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구나 행복한 가족을 구성해야 하며, 불행한 가족을 해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으로 존재하고 또 존재할 것이다.

3. 행복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시도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접고 여성자신의 삶을 찾아가려는 이혼 여성들과 어머니 되기를 혹은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그만큼 남성중심적이며 여성들에게 불편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변화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아



직도 우리 사회는 이혼한 여성을 성격이 독하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거부한 매물칸 여성으로 낙인 찍고, 독신 여성을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는 혹은 매력 없는 여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텔런트 윤다훈이 미혼부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미혼모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평가받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 모두는 가부장 중심 가족제도에 반기를 든 여성들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이 양산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일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 가정(家父長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여성이 남편이나 아버지 없이 홀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더욱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애비 없는 후례자식'이라는 말은 있지만 '어미 없는 후례자식'이라는 말은 없다. 이는 '아버지가 곧 가정 교육과 규율의 중심이며, 핏줄은 아버지를 통해 이어진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다. 또한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이혼 여성과 그 아이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지금의 법 역시 이와 같은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가족을 구성할 자유가 있다. 여성에게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혼할 권리, 결혼하지 않을 권리, 이혼할 권리, 어머니가 될 권리, 어머니가 되지 않을 권리,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결혼은 결코 의무가 아니며, 이성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만이 가족은 아니다. 전형적인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도는 색안경을 끼고 손가락질 할 대상이 아니라 행복해 지려는 인간의 의지의 실행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과 함께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지난 시절의 향수를 위해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강요할 것인가.



4. 능동태: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다. 분명히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가족과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걱정하거나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가족의 형태가 그 평균의 신화와 다르다고 해서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물론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따르는 것에 비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선택은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과,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을 보다 솔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 자유는 그저 꿈만 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 선택의 자유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기회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왜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그렇게 살고 싶은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진실한 욕구와 행복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에게 결혼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될 때, 결혼이 절대절명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들이 같은 무게로 존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자신이 한 선택과 그 선택을 지속 혹은 변경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인**

살아만 마냥 물흐르는데로만 나들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내가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후의 나의 가족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언니야 사랑해

어쨌든 착각하기만 한 인터넷 세상에서 편안히 읽 수 있는 곳. 사람 냄새나고 정겨우면서도, 발랄하고 즐거운 상상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할 것. 일단 컴퓨터를 켜고, 각자 여건에 맞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그리고 주소창에 입력하기 www.unninet.co.kr. 기억하기 쉽게 언니넷 폼 세오 폼 케이 알.

광장에서 길찾기.



언니네에 처음 들어간다면 우선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길찾을 때 헷갈리지 않겠지? 광장은 굵적굵직한 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예호마다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특징이 있어. 음나,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큰 이야기들은 아냐. 제목들을 살펴볼까? 내안의 콤플렉스, 연애대란, 20대 삶의 지형도, 노세노세... 대중 감이 오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테마로 이야기하는 거지. 밖에 그때그때 언니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담은 칼럼, 그리고 만나고 싶은 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인터뷰 정도가 광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주된 내용들이야.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구. 탭진답게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여성뉴스가 화면 오른쪽에 떠있기도 해. 아하, 그리고 왼쪽 구석에는 조그만 투표란도 있어. 특징기사와 관계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도 하지. 노천까페 예긴 왜 안 하나구? 성질도 급하셔. 쏘 있다 하려구..^^



이제 광장 구경은 했구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자구. 해~~ 아까 광장과 이곳은 조금 다르게 구성 되어 있어. 왜, 동네에서 슬리퍼 직접 끌고 이런저런 가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비디오가게라든가 만화방, 음악사, DDL(Drama Drama Lover)같은 곳들은 대중 감이 오지? 우리들이 쉽게 향유하는 대중 문화에 대한 언니들의 비평을 읽을 수 있는 곳이야. 또 말 그대로 맘에 안드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아작내는 아작네가 있구. 불가마 편집방에서 한판 수다떨면서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동급외천용판에서 야시한 얘기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나누기도 해. 혁, 오후네 세탁소를 빼먹을 뻔했네,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을 말끔히 세탁해 줄 오후네 세탁소.(정말이지 싸나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니깐) 이렇게 동네 한바퀴 돌아보면 오히려, 언니네 참 잘왔구나 싶을 거야.

수다떨기



음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서 서로 수다를 떨 수 있게 해놓은 여러 게시판들이야. 말로 언니네의 백미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장의 노천까페 말고도 동네에 있는 가게마다 게시판이 다 따로 있으니 말이야. 게다가 얼마전부터는 토론방과 채팅방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어 정말 만나서 수다떨긴 딱이지 뭐. 참, 이런저런 방식으로 수다를 떨고 싶다면 우선 언니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물론 공짜^^)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바로 가입이 되니깐. 별거 아니지? 세탁소 오후네 언니네 회원이 20만을 넘으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출 작정이라는데, 많이들 가입하면 덤으로 그 춤을 볼 날이 당겨지겠지? 쿠후

언니네, 우리의 상상이 즐거운 세상으로

매월 1일과 15일에 업데이트되는 언니네지만, 한달에 두번만 들어오면 언니네랑 그렇게 친해지긴 힘들거야.(음나, 이쯤에서 영어 한마디. Out of sight Out of mind.) 자주자주 들어와서 여성뉴스도 체크하고 게시판이나 채팅방 둘러서 수다도 떨고, 모두들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린다면 언니네, 정말 신나고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언니네에서, 자주자주 만나자구!!!

밥퍼! 램퍼!

김신현경(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

혹시 '여성문화예술기획 마녀'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92년에 만들어진 이 단체는 여성주의 시각의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연극, 콘서트, 문화 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어, 서울여성영화제나 98년 심야영화제 '공포분당', 또 '자기만의 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조네스의 꿈', '마요네즈' 등의 여성주의 연극을 기획하고 무대화했지. 이번에 마실을 다녀온 뮤지컬 '밥퍼? 램퍼!'도 한국에서의 여성주의 연극의 맥을 이으면서 새로운 형식적 실험의 가능성을 탐색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잘 모르고 봐도 재미있는 작품이긴 해. 뮤지컬이라는 형식이 워낙에 그렇잖아. 박진감 넘치는 춤과 노래, 뚜렷한 서사구조로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이 뮤지컬에는 혜자, 강애, 미애, 예리라는 4명의 여자가 중심인물로 등장해. 이들은 각각 여성들의 어떤 성격의 전형을 대표하는 한편, 우리들 내면에 공존하는 혼란이기도 해. 우선 혜자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생의 의미를 잃은 채 돌변하는 여자야. 그녀에게는 아들이 전부이지만 아들의 의사소통은 계속 엇갈리기만 하지. 강애는 직장여성.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남자의 사랑이 중요해. 그녀는 직장이 있는 건 다행이라고 노래하지만 한편으론 결혼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지. 미애는 남편의 부를 자신의 것

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영악한 여자. 예리는 남자보다는 인류를, 보석보다는 정의를 더 사랑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시종일관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허공에 뿔뿔이 나.

아들은 '전통맨 하우스'라는 남성클럽에서 라틴 댄스를 즐기며 자신들의 가감없는 욕망을 드러내지만 남성적 공간 안에서 아들, 남편, 애인과의 관계를 새로이 맺지 못한 채 보여주는 몸짓과 언어는 남성적 시선에 감춰버리지. 그래서 그녀들은 '레이디 클럽'이라는 여성전용클럽을 만들어. 근데, 여자들이 '놀' 돈이 없잖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그들은 램과 램의 합창 언어에 자신들의 욕망을 실어 나르는 데 성공하게 되며, 아들과 남편과 애인으로도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 내게 되지.

줄거리는 뭐, 그저 그렇다구? 너무 전형적이라구?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직접 현장에서 이 여자들의 말과 몸짓이 변해가는 걸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특히 혜자 역을 한 언니가 남편 잃고 나서 정신없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커다란 몸을 멋지게 흔들면서 눈빛마저 달라질 땐 맞아, 여자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파워풀한 건데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게다가 관객 중에서 젊은 여자애들은 나랑 같이 간 친구 2명이 전부였는데 나머지 아줌마 관객들이 배우들과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이란.....

나의 불만은 좀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각각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맺는 관계가 아주 자연스레 좋아지면서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 여전히 남성들과의 관계를 상상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걸까? 그게 무슨 불만이나구? 음, 물론 나도

여, 남의 조화로운 모습, 평등한 관계가 좋긴 해. 근데 어떨 땐 이 관계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 같애. 난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진지하게 사고하는, 여성들 내부의 에너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드러내놓고 제발하는 사고방식의 총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으로써 페미니즘이 어떤 남성들에게 자신에게 아로새겨진 가부장적 권력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남성들의 몫인 거지. 여자들이 일일이 행거 짚서 팀 문제는 아닌 것 같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에서 마지막 해피엔딩을 여성들의 한 관측대로 끝내기보다 남성들과의 행복한 관계로 끝내는 게 어떤 이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허용될 수 있는 일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지.

한국은 주 연극 관객층이 20대 미혼 여성들이래. 다른 나라의 경우 남성 관객이 주인 가에 비해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하더군. 그럼에도 여성들이 감정이입을 하며 연극적 상황이나 언어 자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키워드가 될만한 연극이 몇 편이나 될까? 연극계 내부에서의 남성중심적인 위계질서는 또 말로 다 못하지. 그래서 이번 여성주의 뮤지컬 '밥퍼? 램퍼!'와 같은 실험물이 소중한 걸 깨야. 여성들이 기획에서 제작까지를 총괄하는 제작과정의 실험, 여성들의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천착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관객층을 포괄하는 내용상의 실험, 삶사와 램과 램이라는 이 시대 욕망의 제일언어인 춤을 도입한 형식상의 실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음엔 더 멋진 여성주의 연극 한 판 대륙에서 신명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대**

100원짜리 권력

마아(연세대 비교 문학대학원 석사과정)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엄마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반찬값이나 반다고 이모네에 품 팔러 가시곤 하셨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집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빈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 항상 친구들과 늦게까지 밖에서 놀곤 했다. 엄마는 나에게 100원짜리를 주셨다. 나는 그 100원으로 우리 집에 셋방살이를 하는 동갑내기 미애와 문방구에서 똑같은 종이 인형 두 장을 사곤 했다. 그 때 종이 인형은 20원이었고 나는 이리저러한 50원짜리 군것질을 하고 오후 내내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서 가위로 종이 인형을 오토했다.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려면 그림 속의 인형과 옷들 여러 소품까지 모두 오래해야 했기에 시간은 잘도 갔다. 인형을 오리면서 미애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인형에 관한 이야기였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인형 오리기에 열중했던 것 같다. 무언가에 열중해 있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좋았다.

나는 금강 구두화 상자에 한 가득 종이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종이 인형은 몇 번 가지고 놀면 가는 목이 찢어져 흩물스럽게 된다. 그러면 손발이 다 달린 인형 옷에다가 풀칠하여 머리를 붙인다. 이렇게 목과 옷을 붙인 인형은 옷을 갈아 입힐 수 없어서 금방 식상해져 버린다. 옷을 갈아 입히지 못하는 인형은 한 가지 대서만 되풀이하는 엑스트라가 된다. 이런 인형들은 주로 하녀를 시킨다. 가장 최근에 산 인형은 항상 공주였다.

나와 미애는 모두 똑같은 종이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 혼자서 문방구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나는 항상 똑같은 종이 인형을 두 장씩 사곤 했다. 그 종이 인형을 사는데 내가 늘 돈을 낸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미애와 내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리고 그 애와 내가 종이 인형을 가질 수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세를 주는 주인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집 형편도 그리 넉넉한 사정이 아니었다.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는 날은 종이 인형을 사기 위한 100원을 얻기 위해 나는 주저앉아 발을 뻗고 우는 소리로 때를 썼다. 그래도 엄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얹드려 울곤 했다.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엄마가 돈을 주시면 나는 동냥하는 거지처럼 납죽 인사하고 미애를 불러 문방구로 달려가곤 했다. 고물상을 지나고 휴먼지가 널리는 큰길을 건너 학교 앞까지 단숨에 달려가면 알록달록 신기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렸던 문방구가 있었다. 그 때 그 문방구로 달려가는 그 길의 설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새로 나온 종이 인형을 구경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을 고르는 일. 그 순간의 황홀함에 비할만한 일을 지금도 나는 생각해 낼 수 없다. 어릴 때, 미애와 내가 사고 싶은 종이 인형이 다르면 각각 두 장씩 사기도 했다. 나는 미애와 똑같은 옷을 입고 싶어했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애네 아버지는 우리 동네 연탄 가게에서 연탄을 나르셨다. 아저씨가 연탄 수레를 끌면 뒤에서 아줌마가 밀면서 하루 종일 일하셨기에 두 분의 얼굴과 손은 항상 연탄 검댕이가 묻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연탄장수 딸이라고 미애를 놀리곤 했다. 그럴 때면 미애는 동그란 얼굴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이들을 쫓아보며 주먹을 쥐어보았다. 나도 함께 아이들 뒤를 돌아가며 '그만 소리 한번만 더해 봐, 가만 안 놔둘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미애는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미애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는데, 가끔 아저씨가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내던지거나 미애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세수대야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미애와 그 애의 오빠 홍길이나는 이 오빠를 무지 싫어했다. 앞니가 부러져 웃을 때는 바보스러운데 상질은 무지 더럽고 화도 잘내고 똑똑하면 미애의 머리를 쥐어박고는 했다. 는 우리 집에 와 있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미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검은 얼굴에 항상 안상을 쓰고 계셨던 아저씨가 술을 드시면 정말 악마로 변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 날은 미애의 동그란 얼굴이 붉어지고 눈은 초점 없이 흐려졌다. 그런 미애를 보고 있으면 몹시 슬퍼졌다.

미애네가 우리 집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궁터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미애네가 이사 가던 날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사 가고 나서도 한 동안은 미애와 놀았던 것 같다. 새로 이사가간 미애네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크게 비닐로 연탄을 쌓아놓은 창



고 옆에 딸린 집이었다. 미애는 자신의 종이 인형 상자를 꺼내어 우리 동네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성당 근처의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다는 원더우먼 종이 인형을 보여 주었다. 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종이 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더우먼은 없었다. 질투심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선 그 애의 미소. 미애가 그 원더우먼 종이 인형을 한 장만 샀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그 아이의 웃음이 무척 낯설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로 나는 미애가 종이 인형을 샀다는 문방구에 혼자 가 본적이 있다. 방공호였던, 우리들은 돌 놀이터라고 부르는 국방 색 개구리 무늬가 돌에 새겨진 건물을 지나 성당 근처의 오르막길을 오르며, 그 동네의 유료 공중변소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과 속옷차림으로 대낮에 목욕탕에 가는 언니들을 구경하면서 그 문방구를 찾아갔다. 원더우먼 종이 인형은 그곳에 없었다. 텅텅 빈 되돌아오면서 돌 놀이터 담벼락을 뛰어넘어 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는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날 이후 종이 인형을 산 기억이 없다.

그리고 미애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어렸을 적 나는 세상 어디 가든 내 생물이 본신이 있을 거라 상상하기도 하고, 무엇 이든 똑같이 나누는 것에 만족스러워 했다. 어린 날 내가 가졌던 동일성에 대한 욕망은 같음과 평등이 미분화된 것이었다. 나에게 사탕이 4개 있으면 친구 두 명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 동그란 사탕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삼등분을 할까 고심하곤 했다. 사탕을 하나 더 먹고 덜 먹는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우리가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비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소유라는 관념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몰랐을 때였다.

조금 자라서 남이 가진 물건에 대한 질투와 욕망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결핍감은 쉽게 작개심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 나는 4개의 사탕 중에 남은 하나

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 하나는 애초의 소유주인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다. 남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충분한 산행을 한 것이라 여기게 되었다.

어린 날 내가 가졌던 순진한 동일성의 추구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으로 변질되었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동일성에 대한 공포로 바뀌어갔다. 남과 같아서는 수억의 인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자신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제 나는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와 달랐다는 말도 듣기 싫어하게 되었다.

이 살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자잘하고 속된 이해 속을 따지는 자선에 대한 혐오감이 울적 치밀어 오르면 가끔 어린 시절 생각을 한다. 미애에 대한 나의 애정과 무구했던 어린 시절의 욕망에 대해.

나는 어린 시절 가졌던 같음에 대한 욕망을 평등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추억한다. 하지만 이렇게 낭만화된 나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적선과 동정, 그리고 자신의 가난을 확인시킨 비참한 결핍의 경험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찔함이란.

나는 내가 가졌던 100원짜리 권력의 의미를 되묻는다.

미애는 종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미애가 사고 싶어했던 인형은 별로 없었다. 두 종류의 다른 인형을 샀을 때에도 둘 중 무엇을 살지 고르지 못한 내가 둘 다 가지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저 말없이 내가 인형주는 인형을 오후 내내 나와 같이 오리곤 했었다. 인형을 오리낸 후 미애와 인형놀이를 했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인형이 완성될 즈음엔 이미 때늦은 오후라 숙제를 해야 했거나 언니 오빠가 집에 왔던 것 같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린 시절 나는 고집쟁이였고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했다. 내가 소꿉장난감을 새로 사면 쓰던 것을 미애에게 주고 같이 소꿉놀이를 했었다. 항상 어떻게 놀 것인가를 내가 제안하고 미애는 늘 내가 하자는 대로 나와 놀아 주었다.

미애의 엄마 아빠는 모두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했기에 미애도 혼자서 집을 보는



일이 많았다. 미애는 가끔 오빠 밭도 치러주고 설거지도 했던 것 같다.

나는 혼자 오래 집을 봐야 했지만 언니들이 많았던 탓에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인형놀이를 할 때면 구두 상자 짝 앉아서 인형을 온 방안에 쏟아놓고 놀다가 밖에서 친구가 부르면 그냥 뛰어나가 놀다가 들어오곤 했다. 언니들은 항상 내게 방을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곤 했다.

우리집은 가난했지만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배우며 자랐고, 나는 가난함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 도덕적 우월감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아이를 비난하는데만 소용되었다. 비오는 날 한 커피숍이 접힌 우산을 쓰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했고, 빨간 장화에 예쁜 그림이 그려진 우산을 든 아이를 몹시 부러워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날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마중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누군가가 마중나오길 바랄 수도 없는 자신에 대해 비참해했고 집에 와서는 까닭없이 심통을 부렸다.

갑자기 나는 너무 부끄러워졌다. 미애에게 20원짜리 인형을 사주고 50원짜리 핫도그를 혼자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탄장수 아버지를 둔 아이의 초라함과 그녀를 변호하는 의협심을 낭만화하는 나 자신에 대해.

항상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 여유로웠던 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부러워하기보다는 천박한 물질주의라고 조소했던 나.

미애의 원더우먼 인형.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적이 없는 아이가 가진 그 원더우먼 인형을 보았을 때 느꼈던 낯설음은 배신감이라고 생각했다. 항상 두 장의 같은 종이 인형을 사서 나눠주었던 내 소박한 우정에 대한 배신. 그러나 그 낯설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미애에 대한 낯설음이었는지도 모른다. 미애는 항상 나보다 가난해서 미애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은 없었다.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미애가 가질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불편함이었을까?

미애는 종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종이 인형을 사주기 때문에 나와 놀아주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미애는 자기 돈을 내고는 종이 인형을 산 적이 없었다. 예쁘지도 않은 원더우먼. 나에게 없을 그 종이인형을 사면서 미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애의 원더우먼은 나의 위선적인 작선과 독선에 대한 복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해본다. 내가 가진 100원에 덧붙여진 권력과 가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아주 다른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미애를 만나고 싶다. 예전에 우리가 종이 인형을 함께 오리며 놀던 일을 그녀는 어떻게 기억할까? 그녀의 기억은 나의 기억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허구적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미애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을 순진무구한 동심으로 그려보고 싶었던 내 허영심이 만들어낸 동화인지도 모른다. **무아는**





김경위, 그녀는 일하는 어머니 의 대명사이다.

장정임(시인, 살류주 편집주간)

7월 24일야 나는 여성신문 인터넷 게시판에서 너무도 놀라운 글을 발견했다. 7월 21일 처음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 글은 <나의 어머니의 패륜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학 2학년 딸이 어머니의 친정집과 남자친구의 연락처,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밝히며 제 어머니의 불륜을 고발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경장 승진후 술을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며 바람까지 피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엄마가 퇴근 한 후 집에서 하는 일은 오로지 손톱 정리, 화장하기, 욕실에 들어가는 일, 일자로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일 뿐"이란 식으로 쓴 글을 보면서 딸에게 반영된 남성중심 사고와 나 또한 일하는 여성으로서 강요 당했던 자녀양육, 가사노동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되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은 파출소장인 어머니가 할머니를 부려먹었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아버지가 어떻게 그 부분을 분담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 모든 일은 오직 어머니가 다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다. 또 어머니가 술을 먹었다고 비난한다. 아버지의 경우라면 이런 추궁과 요구와 폭로가 가능했을까? 또 김경위가 보통 주부였다면 이런 폭로를 했을까? 어머니가 파출소장이란 직위를 가졌기에 더욱 철저히 그 권위를 깃잡아내려는 의도가 곳곳에 보이는 글이었다. 이 어머니의 성취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지 않는 이 가족은 그런 직위로 바빠지고 자아가 강해진 어머니, 아내, 미느리가 견딜 수 없이 미웠던가 보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이 사건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의 문제이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라고 파악하였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쇠퇴해 가는 가부장제 부권대리인으로 내세워진 딸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래서 즉시 <누가 딸에게 어머니 단죄의 권리를 주었습니까?>란 글을 써서 광주일보 등 관련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미 서부경찰서나 광주일보 한겨레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김경위를 호되게 질타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우리 살류주 동인은 25일 동인모임을 갖고 이런 편견과 싸우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7월 26일 8시 36분에 <어머니 인권보호를 위한 사이버 전쟁선포>를 우리 게시판에 선언하고 동인들은 각 게시판에 우리의 주장을 펴며 일방적인 여론을 깨려는 작업에 나서 참으로 치열하게 싸웠다.

"저와 남편은 제가 고3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으나 학교에서 다른 여학생과의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하여 2학기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옮겨 주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제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여수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매주 여수로 찾아와 만나게 되었고 80년 3월 딸을 임신하게 되자 아들 하나를 둔 이혼남인줄 알면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80년 가을쯤 남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여교사와 내연의 관계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퇴근을 10분만 늦게 해도 어디서 어느 놀과 놀다 왔나고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예를 들어보면 밥상을 차리다가 변한그릇을 소리나게 상에 놓다는 이유) 폭행을 하는 등 집안에서의 폭행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저의 직장인 경찰서 앞에서 저의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89년 무안경찰서 앞, 93년 광주남부경찰

김혜련 웹진@zooma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는 보지 못하는 딸의 눈에 엄마의 시시콜콜한 잘못은 현미경 보듯 확대되어 보이는 이 기막힌 중세. 엄마는 엄마일 뿐 한 인간. 한 여자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상한 중세의 원인은 바로 각본에 있다. 각본만 있고 삶은 없을 때,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삶, 상처와 고통, 자신과 가족을 위한 노력, 그리고 뒤통에 만난 사랑...그녀의 처절한 진실은 보이지 않고 다만 남편도 자식도 바라보지 않는 파렴치한 아내, 엄마만 남는다.



서일, 99년 5월에는 광주동부경찰서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기분이 나쁠 때는 주위에 누가 있던
 었든 의식하지 않고 폭행을 하고 이를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김경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경위를 그저 간통녀로 몰아버리는 시각은 상당히
 많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생각으로 김경위 비난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딸
 의 글 이후 어머니 친구의 글, 한겨레 21의 인터뷰, 김경위의 진술서 등에 그녀의 처절한 삶은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김경위의 주변인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류주에게 사이버 테러
 를 감행하며 검찰청 사이트 등에서 김경위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가부장제와 집착된 자녀중심 가족관이 얼마나 아내와 어머니를 노예화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바라본다. 가족 누구도 김경위의 직업이나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거나 존중할 생각조
 차 하지 않았다. 김경위의 가족 탈출 시도에 과도히 분노했고 잔인하게 응징했던 것이다. 아무도
 김경위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오직 어머니와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만을 끝까지 요구
 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새로운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가 생겨
 났다는 징후를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사이가 좋다고 여겨져 왔던 어머니와 자녀 사
 이가 이렇게 변한 데에는 우리사회의 참으로 미묘한 문제들이 실핏줄처럼 엉겨 있다. 사회경제
 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직업적 부담과 육아부담, 지위향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일터에서 경
 제활동과 자아성장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를 여전히 가정 내 육아와 가사노동전담자로만 보려는
 구세대적 사고방식 등. 너무나 뿌리 깊은 남녀차별문화에 익숙해진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자녀중
 심을 강요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의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개인의 행복도 포기하고 오직 가정과 자녀를 위한 희생자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요구
 는 너무나 당연히 말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맹목적 동조자도 상당히 많다. 몇 개의 토론회사이트
 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간통사건으로 보는 견해와 이를 여성문제도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뉘
 어져 마치 적처럼 감정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게 어디 단순히 간통사건인가? 우리는 현재 살
 류주 홈(www.salluju.pe.kr)에서 김경위 살리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은 그 진정서의

한 부분이다.

“이혼의 선택도 결혼의 선택도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윤리적 책임과 도덕성을 과도히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성은 더이상 건디기 힘든 가정을
 나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죄로 어떻게 일귀 온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하는지요? 가
 부장제가 아직도 창궐하는 한국에 살기에? 이혼해주지 않고 매장시키는 독한 남편과 어머니를 자신의 평생보
 호자로만 아는 딸을 가졌기에? 만약 온전이의 글이 아니라면, 만약 사문화 되어야 할 간통죄가 없었다면 남편
 이 이혼을 해주었다면 딸이 어머니를 자신의 행복권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인정하였다면, 김경위는 이런 수치
 와 불행에 당하지 않고 훌륭한 경찰로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다수 여성들은 자신을 남성가정의 소유나 보조자로 생각하는 남편과 자녀와 가족 속
 에 존재한다. 우리는 오늘날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이란 성역할 이분법에 빠진 채 가정과 일
 터에서 자아실현을 어렵게 성취해나가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제를 경험한다. 김경위
 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일을 가진 어머니들이 겪는 문제이며 자아를 찾고 행복을 찾으
 려는 여성들이 슬하에 부딪치는 수많은 억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구본민**

심영심(한겨레21)

가정에서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었고, 폭
 력으로부터 파란치이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
 한 돌파구인 경감승진시험...- 김경위(진술서)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 어머니와 딸은 서로에게서 서로를 회귀
 했지만, 이제 그 낙원은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서로를 폭종처럼 핏
 쥐고 간 상처와 패려,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이 흘렸던 많은 한숨과 눈
 물이 보태진 고단한 현실일 뿐.





교과서 씹어먹기!!

남녀차별 엮이야기???

교과서가 남녀에게 고정된 성 역할만을 학습시킨다는 비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학교에서 남녀가 함께 가정과 기술산업을 배우며 바람직한 성 역할을 배우고 있다는데... 교과서에 나타나는 남녀 차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인지 중학교 1학년 가정 교과서를 한 번 살펴보자.

예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아들과 딸이 하는 일을 성별에 의하여 구분지어, 남자는 밖에 나가 사회 활동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집안일과 자녀 돌보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남녀가 일을 분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평등 사상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성별에 의하여 역할을 구분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로 부족할 때, 아직도 남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올곧은 남성들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 요즘도 여~한 사람이 있을까? 한 명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교과서

여자는 한번 커리어 다시 붙일 수 없는 사기꾼! 세고만계느낌도 좋아요. 여자 손절을 입어라! 퇴직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군지 알고 뭘~생각 지어라! 코치지.

불변전한 성관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으며, 또 결혼한 뒤에도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남을 수 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순결을 잃었다면,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경직된 남녀의 역할 구분이나 성차별은 남녀 모두의 권리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여겨 남녀 모두 재능과 능력을 자유로이 개발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남녀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것을 성역할에서의 **평등주의적 사고 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즉,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인정하면서도 가사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우려는 남성은 흔하지 않다. 이제까지 익숙해 왔던 남성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다소간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으로는 남녀 평등이나 융통성 있는 성역할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생활의 행동면에서는 남성 우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신전통주의적 사고 방식**이라 한다.

두입술을 입고 조금씩 흔들리는 남성들의 모습, 길게입니다!!!

역시 객관적인 교과서라니, 여느 책의 편도 들지 않고 어떻게 융합적인 입장을 견지하느냐... 아이들에게 어떠한 선입견도 심어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 교과서 총평- 본 교과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에 걸맞게 하나의 사례만 제시하고도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내는 등 앞을 내다보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리송한 단어를 씌어서 독자들에게 해석의 폭을 넓혀주고 더구나 이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업 성취율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다. **두산**

두입술

2000. 가을 - 4호

●만문어 : 김정민(신문방송99)
박은경(신문방송99)
양혜진(유일어문98)
이지은(기계전자98)
최은경(인문학부98)
조소현(인문학부98)
김유영(인문학부97)
박효원(사회복지97)
전양숙(인문학부97)

●펴낸이 : 김유영

●펴낸곳 : 두입술 편집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134 연세대학교 (120-749)

전화 / 016-773-0580 (편집장)

통신ID / 두입술(나우누리), twolips(참세상)

통신망 / go twolips (참세상)

통신동호회/두입술(dreamwiz.com)

●만문곳 : 뿌리기획(2263-2311)

●발행일 : 2000년 가을

●후 원 : 연세대학교 제12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 예산 자치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뿌리기획 여러분들과
인쇄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www.tobest.com info@tobest.com

To Be The Best Software



TBSoft, Inc.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시간종량제, 다운로드종량제, 건수종량제 등 사용자나 운영자가 원
하는 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TB-WebCard)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광고 수익에만 의지해 오던 인터넷
사업에 다양한 수익모델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티비소프트는 항상 최고만을 고집하며, 시대를 리드하는 개척정
신과 기술을 중시하는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청년 벤처회사입니다.

인터넷 디지털세상을 이끌어갈 프로그래밍, 디자인, 기획, 마케팅 등
각 분야에 전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모십니다.

※ E-mail: cecilia@tobe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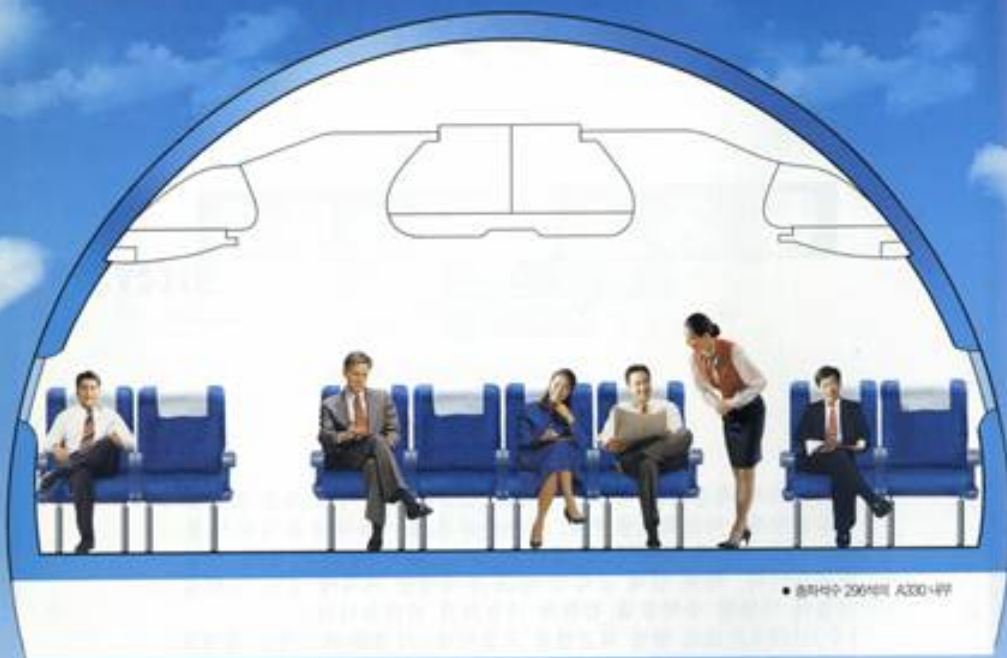
TBSoft

(주) 티비소프트

서울시 강남구 선릉동 570-12 차산프라자 2층 Tel : 549-0790 Fax : 549-0791

Homepage : http://www.tobest.com E-mail : info@tobest.com

서울 ↔ 부산 큰 비행기, 여유로운 여행



● 총좌석수 296석의 A330-300



● 첨단 중대형 항공기 A330

하루 평균 **29회**
대한항공의 중대형 비행기로
쾌적하고 여유롭게 다녀오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욱 편리한 스케줄, 낙이편 서비스를 완벽하게 실현함으로써 대만항공으로 대대적으로
하루 8,000석 이상의 여유로운 좌석과 평균 30명 이하 한 대에 있는 최대 스케줄을 더욱 편안하게 모십니다.



“LG이숍에 없는 제품이라면
생활에 필요없는 제품일지도 모릅니다”



名車의 품·격·완·성

달리는 곳을 알아차린
느껴지는 것은 품격
품격은 드러나지 않는
명품의 자존심
명품의 품격을 완성한다



고용량 E3091

세렉스



미래가치 창조

현대중공업은 5개의 중·고교와 울산과학대학,
울산대학교를 운영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6개의 복지회관, 5개소의 사계절 푸른잔디구장 등
우수한 문화, 스포츠시설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현대중공업
<http://www.hhi.co.kr>